

202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민속문화재분과 회의록

- 일 시 : 2021. 7. 13.(화) 14:00~17:00
- 장 소 : 문화재청 대회의실
- 출석위원 : 김왕직(위원장), 강옥희, 김기주, 김두규,
남호현, 이은주, 이은하, 이창안(이상 8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 | | | |
|---|-------------------------------|--|
| 1 | 고창 오거리 당산 주변 주거복합건축물 신축(재심의) | |
| 2 | 경주 양동마을 내 초등학교 차양막 설치 | |
| 3 | 합천 묵와 고택 주변 단독주택 및 부속창고 신축 | |
| 4 | 울릉 나리 역새 투막집 주변 스마트온실 설치(재심의) | |
| 5 | 보은 최감찰댁 주변 태양광 설치(1) | |
| 6 | 보은 최감찰댁 주변 태양광 설치(2) | |

【검토사항】

- | | | |
|---|---------------------|--|
| 7 | 호국지장사 불복장 저고리 지정 검토 | |
| 8 | 왕가 어린이 옷 지정 검토 | |
| 9 | 민속마을 건축물 정비사업 추진 검토 | |

【보고사항】

- | | | |
|----|---------------------|--|
| 10 | 현상변경 자체처리 결과 보고 | |
| 11 | 국가민속문화재 훼손 신고 관련 보고 | |

심 의 사 항

1. 고창 오거리 당산 주변 주거복합건축물 신축(재심의)

가. 제안사항

전북 고창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고창 오거리 당산」 주변 주거복합 건축물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고창 오거리 당산 주변에 주거복합건축물 신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5구역(이격거리 201m)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 5구역 : 고창군 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단,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개별 심의
- 본 안건은 문화재위원회 민속분과 제4차 회의('21. 6. 8.) 심의 결과 역사문화 환경 저해를 사유로 부결된 건으로, 높이를 58.57m(기존 87.2m)로 조정하여 재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고창 오거리 당산」
 - 소 재 지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84-6, 282-4, 878-1
- (3) 신청위치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 ○
- (4) 신청내용 : 주거복합건축물 신축

구분	금회 신청내용	'21.06월 신청내용(부결)
건축면적	926.48㎡	864.32㎡
연면적	12,288.151㎡	14,901.04㎡
층수/높이	지하4층 지상 17층 58.57m	지하4층 지상 25층 87.2m

라. 검토의견(무형문화재과)

- 신축건물 높이를 87.2m에서 58.57m(감 28.63m)로 축소하여 재신청한 건으로, 해당 문화재와 비슷한 이격거리에 위치한 가온채아파트(이격거리 210m, 최고 높이 54.55m) 및 주거복합건축물(이격거리 200m, 최고높이 54.45m/'20.04월 위원회 심의 가결) 등 기 허가건을 감안하여 위원회 논의가 필요함.

마. 참고사항

[25층 신축 당시 현지조사 의견, 전 문화재위원 ○○○·문화재전문위원 ○○○/'21.05.31]

- 제출된 높이(지상 25층, 87.2m)로 신축될 경우, 해당 문화재의 경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인근(동일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역)에 17층(54.45m) 높이의 주상복합 건물이 기 허가된 것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04월 가결된 주거복합건축물 신축 관련 심의자료]

- 신 청 건 : 주거복합건축물 신축
- 신청위치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84-6, 282-4, 878-1
* 금회 신청건과의 이격거리 130m / 문화재와의 이격거리 200m
- 신청내용(최고높이를 조정하여 4차례 문화재위원회 심의)

구분	'20.04월 신청내용(가결)	'20.02월 신청내용(부결)	'19.12월 신청내용(부결)	'19.10월 신청내용(부결)
건축면적	1,445.92m²	1,429.30m ²	1,429.30m ²	1,469.45m ²
연면적	17,686.09m²	22,765.58m ²	23,377.20m ²	30,582.71m ²
층수 /높이	지하3층 지상 17층 54.45m	지하4층 지상 27층 86.4m	지하4층 지상 29층 90.8m	지하5층 지상 39층 118.85m

바.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2. 경주 양동마을 내 초등학교 차양막 설치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경주 양동마을」 내 초등학교 본관 뒤편의 차양막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양동마을 내 초등학교 본관 뒤편의 차양막 설치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양동초등학교장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경주 양동마을」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일원
- (3) 신청위치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65-1
- (4) 신청내용 : 차양막 설치
 - 설치목적 : 우천 시 등 학생 야외활동 공간 마련
 - 세부위치 : 본관 건물 뒤편
 - 길이/폭 : 길이 22.1m/폭 8m(북쪽면), 9.5m(남쪽면)
 - * 북쪽면의 수목 보호를 위해 차양 폭을 달리 적용
 - 면적 : 194.9m^2 ($8\text{m} \times 10\text{m} + 9.5\text{m} \times 12.1\text{m}$)
 - 높이 : 전열기둥 3.050m, 후열기둥 3.7m ※ 본관건물 높이 8m
 - 재료/색상 : 경량알루미늄 복합시트 지붕재, 스텐파이프 기둥/갈색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우천 시 학생 야외활동 공간 마련 등의 목적으로 학교 본관 건물 뒤편에 설치하는 것으로, 양동마을의 주진입로인 학교 정문 쪽에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3. 합천 묵와 고택 주변 단독주택 및 부속창고 신축

가. 제안사항

경남 합천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합천 묵와 고택」 주변 단독주택 및 부속창고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합천 묵와 고택 주변 단독주택 및 부속창고 신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1구역(개별심의, 이격거리 약 55m)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합천 묵와 고택」
 - 소 재 지 : 경남 합천군 묘산면 화양리 485
- (3) 신청위치 : 경남 합천군 묘산면 화양리 ○○○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및 부속창고 신축
 - 대지면적 : 526㎡
 - 건축면적/연면적 : 102.69㎡/102.69㎡
 - 주택 78.69㎡, 부속창고 24㎡
 - 층수/높이 : 1층/5.4m(주택), 3.5m(창고)
 - 구조 : 경량철골조
 - 지붕 : 서양식기와(주택), 강판기와(창고)
 - 외벽 : 황토벽돌(주택), 목재사이딩(창고)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본 건물은 기존에 있던 낡고 노후한 주택과 창고를 헐고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업예정지가 묵와 고택 후면 산기슭 위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에서 조망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함.

마.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2021. 3. 12.)

○ 문화재위원 ○○○

- 본 사업은 합천목와고택 뒤편 대지에 기존의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주택과 창고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건물이 낡고 오래되어 철제 지지기둥(동바리)을 세울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거주자의 안전과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이 지역은 마을과 약간 떨어진 후면 부분으로 독립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곳인데 전면의 들판과 후면의 산이 경사를 이루면서 양호한 농촌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그러한 가운데 이 집은 목와고택으로부터 55m 떨어진 바로 뒤편 언덕에 위치하고 있어 경관측면에서 중요한 지점임.
- 주택 본체는 황토벽돌과 시멘트기와지붕으로 마감하고 있는데 재료는 이해할 수 있으나 집의 형태나 입면 등이 문화재 등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또한 창고의 경우 입면의 재료가 벽은 목재패널이고 지붕은 칼라강판 기와지붕인데 역시 집의 형태와 재료 등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함. 따라서, 문화재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해 보임.

○ 문화재전문위원 ○○○

- 경남 합천군 묘산면 화양리 470번지의 단독주택 및 창고 신축건은 합천 목와고택의 근거리에 위치(60m 이내)하고 1구역에 포함되는 장소로 확인됨.
- 현장조사를 통해, 현재 안채, 행랑채, 창고 등의 건축물이 확인되고 이중 입구의 행랑채는 반파된 상태로 확인됨.
- 신축설계안을 검토한 결과, 기존의 행랑채는 철거하고 안채와 창고는 현재의 위치에 신축함으로써 기존의 건축물 배치와 유사하게 계획됨.
- 건축물의 기본적인 구조는 목조로 계획되었으나 벽체와 지붕 등의 형태와 재료 사용에 이질감이 커서, 주변경관의 저해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4. 울릉 나리 역사 투막집 주변 스마트온실 설치(재심의)

가. 제안사항

경북 울릉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울릉 나리 역사 투막집」 주변 비닐하우스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울릉 나리 역사 투막집 주변 스마트온실 설치 행위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1구역(개별심의/이격거리 약 100m)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본 안건은 문화재위원회 민속분과 제4차 회의('21. 6. 8.) 심의 결과 역사문화 환경 저해를 사유로 부결된 건으로 재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울릉 나리 역사 투막집」
 - 소재지 : 경북 울릉군 나리 1길 71-316번
- (3) 신청위치 : 경북 울릉군 북면 나리 ○○○
- (4) 신청내용 : 스마트온실 설치
 - 대지면적 : 2,132㎡
 - 건축면적/연면적 : 72.5㎡/72.5㎡
 - 구조 : 강파이프구조
 - 높이 : 3.2m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2021. 7. 5.)

- 현상변경 신청한 스마트온실(야생화모종 재배시설)은 국가민속문화재인 투막집 으로부터 약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함
- 구조는 비닐하우스 형식의 파이프 구조이고, 외부에 투명pc를 대고 관수시설 및 환풍기 등을 설치하고 이를 스마트팜 서버에서 제어하는 형식임
- 설치 예정위치는 천연기념물인 섬백리향 군락지와 인접한 곳으로 나리분지와 성인봉을 연결하는 탐방로에서 약 20~30m 정도 떨어져 있음. 현재는 숲이 우거져

- 시아에서 직접 보이지 않지만 온실이 설치된 후에는 탐방로에서 보일 가능성도 있음.
- 현재도 텃밭의 형식으로 밭을 일구어 야생화 등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 주변에 사유지가 많은 상태로 이와 같은 농업시설(온실) 등이 설치될 경우 이를 계기로 많은 시설 등의 설치신청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개활지가 아닌 곳에 문화재경관을 유지할 수 있는 규모 등을 제시함으로써 적절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산림 훼손이 없는 위치로 조정할 것

5. 보은 최감찰댁 주변 태양광 설치(1)

가. 제안사항

충북 보은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보은 최감찰댁」 주변 태양광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보은 최감찰댁 주변 태양광 설치 행위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2구역(이격거리 약 340m 이격)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2구역 : 평지붕 5m, 경사지붕 7.5m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보은 최감찰댁」
 - 소 재 지 : 충북 보은군 삼승면 선곡리 281
 - (3) 신청위치 : 충북 보은군 삼승면 선곡리 ○○○
 - (4) 신청내용 : 축사 위 태양광시설 설치
 - 기존건축물 현황
 - 건축면적 : 2,463.62㎡
 - 건축물 높이 : 9.3m
 - 태양광 설치현황
 - 시설물 면적 : 486.59㎡
 - 시설물 높이 : 4.1m (태양광 설치 후 최대높이 : 10.412m)
- ※ 참고사항 : '19. 8. 14. 현 축사 위 태양광 설치 허가(면적 415.2㎡, 높이 2.65m)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2021. 7. 5.)

- 해당 문화재로부터 약 340m 이격되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 2구역상에 위치하고 있는 축사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임.
-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축사 근처에 구릉이 위치하고 있어 시각적 간섭은 어느 정도 차단되는 것으로 보임.

- 또한, 현재 축사 지붕 일부에 문화재와 반대방향으로 태양광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금회 신청 건 역시 동일한 방향으로 계획됨에 따라 빛 반사 등으로 부터의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설치예정인 시설의 규모 및 방법 등을 감안할 때 문화재위원회에서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6. 보은 최감찰댁 주변 태양광 설치(2)

가. 제안사항

충북 보은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보은 최감찰댁」 주변 태양광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보은 최감찰댁 주변 태양광 설치 행위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2구역(이격거리 약 340m)으로 행위허가를 신청하였음.
 - ※ 2구역 : 평지붕 5m, 경사지붕 7.5m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보은 최감찰댁」
 - 소 재 지 : 충북 보은군 삼승면 선곡리 281번지
 - (3) 신청위치 : 충북 보은군 삼승면 선곡리 ○○○
 - (4) 신청내용 : 축사 위 태양광시설 설치
 - 기존건축물 현황
 - 건축면적 : 2,463.62㎡
 - 건축물 높이 : 9.3m
 - 태양광 설치현황
 - 시설물 면적 : 486.59㎡
 - 시설물 높이 : 3.9m (태양광 설치 후 최대높이 : 10.484m)
- ※ 참고사항 : '19. 8. 14. 현 축사 위 태양광 설치 허가(면적 415.2㎡, 높이 2.65m)

라. 현지조사의견(문화재전문위원 ○○○/2021. 7. 5.)

- 해당 문화재로부터 약 340m 이격되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상에 위치하고 있는 축사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임.
- 태양광을 설치하고자하는 축사 근처에 구름이 위치하고 있고 해당 문화재와

접하여 충청북도 문화재자료인 ‘보은 최재한 고가’가 자리하고 있어 시각적 간섭은 어느 정도 차단되는 것으로 보임.

- 또한, 현재의 축사 지붕(경사지붕)에 해당문화재의 반대 경사면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금회 신청 건 역시 동일한 방향으로 계획됨에 따라 빛 반사 등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설치예정인 시설의 규모 및 방법 등을 감안할 때 문화재위원회에서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검 토 사 항

7. 호국지장사 불복장 저고리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 종로구 소재 불교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호국지장사 불복장 저고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호국지장사 소장 목조아미타여래좌상 개금불사 진행 중 발견('06.5월)된 저고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신청('20. 2. 24.)함에 따라, 관계전문가 지정 조사('21. 2. 2.)를 실시하고,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대한불교조계종 호국지장사
- (2) 대상문화재 : 호국지장사 불복장 저고리(護國地藏寺 佛腹藏 저고리)
 - 소 장 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불교중앙박물관(위탁보관중)
 - 소 유 자 : 호국지장사(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10)
 - 수 량 : 저고리 1점
- (3) 추진경과
 - ('18. 6. 8.) 보물 지정 신청
 - ('20. 2. 24.) 국가민속문화재(무형문화재과) 지정 추진(이첩)
 - ('21. 2. 2.) 지정조사 실시

라. 지정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문화재위원 ○○○>

- 호국지장사 불복장 저고리는 색상이 남아 있다는 희소성과 장저고리와 구별되는 '견마기'로서의 복식사적 가치는 있음. 그러나 착용자 또는 발원자에 대한 단서가 확인되지 않아 사료적 가치가 미흡하며, 안감 쪽으로 훼손 상태가 심각하여 활용면으로도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함.

-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무형문화재위원 ○○○>

- 호국지장사 불복장 저고리 1점은 조선시대 중기 17세기의 저고리로 직물의 색상이 잘 보존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곰팡이로 인해 색상이 변하고 있는 상태이며, 안감의 깃부분과 동정은 썩어 바스라지고 있는 등 유기물인 직물의 상태가 좋지 않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마땅하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로 지정을 추천함.

<전 무형문화재위원 ○○○>

- 호국지장사 불복장 저고리는 착용자나 발원자 등의 내력이 알려져 있지 않음. 형태상 비교적 긴 저고리의 양 옆에 이색의 천을 대어 만든 견마기에 해당됨. 우리나라의 경우 복식유물이 대부분 출토복식이라 변색되어 원래의 색채를 알기 어려운 것에 비해 불복장유물이라 색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발원문이 없어 착용자를 알 수 없기에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역사적 가치가 미흡하다고 사료됨.
- 겹으로 보기에 겹감에 퍼져 있는 얼룩 외에는 유물의 상태에 문제가 없어 보이나, 안감의 손상정도가 매우 심하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함.

<경기도박물관 연구원 ○○○>

- 본 자료는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연결 지을 수 있는 착용자 또는 발원자에 대한 단서가 확인되지 않아 역사적 가치 부분이 다소 미흡하며, 안감쪽으로 훼손 상태가 심각하여 활용면에 있어서도 국가지정문화재로는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당시 색상이 남아 있다는 희소성 측면과 옆트임이 있는 장저고리와 구별되는 ‘견마기’의 특징이 확인되는 의미있는 저고리로 복식사적 가치는 충분하므로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로 지정 추진 후 보존처리 등을 통하여 보다 안전한 상태와 환경에서 보존될 수 있도록 시급치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지정 권고

- 붙임 1. 호국지장사 불복장 저고리 상세 1부.
2. 호국지장사 불복장 저고리 지정조사보고서 1부.
3. 지장사 목조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지정현황 1부.

붙임1

호국지장사 불복장 저고리 상세



깃 모양	목판당코깃/저고리/견마기	진동	30.5cm / 26.8cm / 26cm 25.4cm(수구너비)
소재	○ 초록/주/겹 ○ 별색(자주) : 깃, 고름, 액간	깃 너비/길이	9.7cm / 88cm (겹깃28+고대19.5+안깃40.5)
총장 뒤/앞	64cm / 64cm	동정 너비/길이	4.6cm / 46.1cm
화장	85.5cm	옆트임	없음
품	○ 뒤 53.5cm ○ 앞 52.5cm(42.5+5+5)	고름 너비/길이	○ 겹 2.3cm / 32.7cm ○ 안 2.2cm~2.4cm / 33cm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1.02.02	대상문화재	(가칭)호국지장사 불복장 저고리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한국복식
	소 속	○○○	직위(직책)	○○○

주요 지정 사항	문화재 종류	미지정
	문화재 명칭	(가칭)호국지장사 불복장 저고리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해당없음
	연혁·유래 및 특징	* 세부 내용 <붙임 1>에 기재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세부 내용 <붙임 2>에 기재
검토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해당없음
		<보호물> 해당없음
		<보호구역> 해당없음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해당없음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해당없음

종합의견	호국지장사 불복장 저고리는 색상이 남아 있다는 희소성과 장저고리와 구별되는 ‘결마기’로의 복식사적 가치는 있음. 그러나 착용자 또는 발원자에 대한 단서가 확인되지 않아 사료적 가치가 미흡하며, 안감 쪽으로 훼손 상태가 심각하여 활용면으로도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함.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처리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 년 2 월 2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8 -

연혁 · 유래 및 특징

- 지정현황 : 현재 미지정
- 명 칭 : 호국지장사 불복장 저고리
- 소 유 자 : 호국지장사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불교중앙박물관(위탁보관)
- 수 량 : 1점
- 규격·재질 및 형식 등
 - 규 격 : 가로 171 × 세로 64cm
 - 재 질 : 주(紬)
- 조성연대 : 17세기 전반
- 현 상

호국지장사는 국립현충원 내에 위치한 사찰로, 통일신라 말 도선(道詵) 스님이 창건한 갈궁사(葛弓寺)에서 비롯되었음. 이후 1577년(선조 10) 창빈 안씨(昌嬪 安氏)의 원찰로 지정되어 화장사(華藏寺)로 이름을 고쳤다가 1983년에 국립묘지에 안치된 호국영령들이 지장보살의 원력으로 극락왕생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호국지장사(護國地藏寺)로 명칭을 변경함.

호국지장사 복장 저고리는 2006년 5월 호국지장사 대웅전 목조아미타여래좌상 개금불사 시 수습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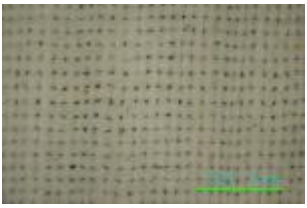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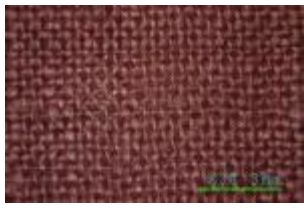
저고리 겹감은 양호한 편이지만 겹감에는 전체적으로 검은 얼룩이 있음. 안감 쪽으로는 곰팡이, 그리고 충해로 인한 훼손이 심하여 깃과 등 부분이 넓게 결실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부서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존처리를 위한 정밀진단·보수 등이 필요한 상태임.

○ 내용 및 특징

- 소재 : 저고리의 겹감은 짙은 초록색(심초록)과 자주색(자적색) 토주(吐紬, 無紋)이며, 안감은 소색 주(紬)임.
- 형태 : 전체적인 형태는 전형적인 저고리인데 뒷길이는 64cm로 긴 저고리와 짧은 저고리의 중간 길이인 중저고리 정도임. 깃은 목판당코깃이고 소매는 진동 30.5cm에서 수구 25.45cm로 점차 좁아지는 직배래이며, 깃·고름·겨드랑이에 자적색 토주를 사용하였음.
- 명칭 : 옆이 막힌 형태로, 길이가 64cm임. 17세기 전기까지는 60~70cm 범위의 저고리는 옆이 트인 장저고리와 구분되는 옆이 막힌 중저고리에 해당됨. 이러한 형태의 상의는 넓은 의미에서는 ‘저고리’라고도 할 수 있으나 정확하게는 ‘견마기’임. 견마기는 세종 2년 원경왕후 천전의 기록에서 ‘袂隔音(세종실록, 세종 2년)’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확인됨. 임란 이후 “肩尔只(1600 『의인왕후빈전도감의궤』),

腋尔只(1632 『인목왕후빈전도감의궤』), 껏마기(19세기 전기 『임원십육지』), 肩莫伊(1882 「임오가례발기」), 껏마기(1894 「계스십월의화군길례 삼간택처녀의 츠」), 肩莫只(1798 『읍혈록』, 1847 『정미가례시일기』, 1898 『禮葬廳謄錄』, 1907 『경빈예장소등록』), 絹莫只(1887 『(정해년)진찬의궤』)” 등으로 나타남.

호국지장사 불복장 저고리 상태 및 직물

		
전면	안감의 곶팡이 및 휘손 부위	안감의 깃·등 결실 부위
		
겉감 : 심초록 토주	안감 : 주	깃·고름·액간 : 자적 토주

○ 문헌자료

『慶嬪禮葬所謄錄』 / 『林園十六志』 / 『世宗實錄』 / 『禮葬廳謄錄』 / 『泣血錄』

『懿仁王后殯殿都監儀軌』 / 『仁穆王后殯殿都監儀軌』 / 『林園十六志』

朴聖實(1994), 「回粧赤古里와 肩尔只 再考」 『美術資料』 54.

[붙임 2]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호국지장사 저고리는 17세기 색상을 확인할 수 있는 몇 점 안 되는 저고리 유물로의 가치가 높은 자료임. 당시 저고리의 형태 및 봉재법 그리고 색상에 대한 학술적 가치가 있음.

그러나 저고리의 사용자나 발원자에 대한 자료가 없어 사료적 가치는 미흡하고 훼손 상태가 심하여 활용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기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처리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1.02.02.	대상문화재	(가칭)호국지장사 불복장 저고리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복식사
	소 속	○○○	직위(직책)	○○○

주요 지정 사항	문화재 종류	국가민속문화재
	문화재 명칭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해당없음
	연혁·유래 및 특징	* 세부 내용 <붙임 1>에 기재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	* 세부 내용 <붙임 2>에 기재
	검토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해당없음
		<보호물> 해당없음
		<보호구역> 해당없음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해당없음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해당없음

종합의견	호국지장사 불복장 저고리 1점은 조선시대 중기 17세기의 저고리로 직물의 색상이 보존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곰팡이로 인해 색상이 변하고 있는 상태이며, 안감의 깃부분과 동정은 싹아 바스라지고 있다. 유기물인 직물의 상태가 좋지 않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마땅하지 않다. 그러므로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지정을 권한다. 만약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시에는 긴급 보존처리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2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연혁 · 유래 및 특징

- 지정현황 : 현재 미지정
- 명 칭 : (가 칭) 호국지장사 불복장 저고리
(명칭안)
- 소유자 : 호국지장사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불교중앙박물관
- 수 량 : 1점
- 규격·재질 및 형식 등
 - 규 격 : 길이 64cm, 화장 85.5cm, 품 53cm, 진동 33.7cm
 - 재 질 : 평직의 견직물(紬)
- 조성연대 : 17세기

○ 현 상

이 저고리에는 현재 동정은 매우 삭아 바스라지고 있으며, 길의 부분과 안감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다. 검은 곰팡이는 습하여 번짐이 진행 중이다. 안감 깃 부분은 삭아 깃에 놓여진 솜이 겹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복장물 수습 당시에도 부식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 내용 및 특징

대한불교조계종 호국지장사(국립서울현충원 內) 대웅전에 모셔져 있던 목조여래좌상을 2006년 개금하는 과정에서 복장(服藏) 유물인 저고리가 발견됨.

깃과 결마기와 고름은 자색(紫色), 길은 청색의 기운이 있는 짙은 녹색이다. 옷감은 주(紬)로 만들었다. 안감은 소색 주(紬)에 동정은 흰색의 매우 고운 주[細紬]를 사용했다. 깃은 목판당코깃이다. 저고리의 형태와 크기로 미루어 볼 때, 17세기로 추정할 수 있다.

○ 문헌자료(없을 경우 생략)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2 복식 자수편, 문화재청, 1997.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대한불교조계종 호국지장사(국립서울현충원 內) 대웅전에 모셔져 있던 목조여래좌상을 2006년 개금하는 과정에서 복장(服藏) 유물인 저고리가 발견되었다.
깃과 곁마기와 고름은 자색(紫色), 길은 청색의 기운이 있는 짙은 녹색의 주(紬)로 만든 여자저고리이다. 안감은 소색 주(紬)에 동정은 흰색의 매우 고운 주[細紬]를 사용했다. 깃은 목판당코깃이다. 저고리의 형태와 크기로 미루어 볼 때, 17세기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저고리는 옆이 막힌 저고리이다. 저고리의 크기는 길이 64cm, 화장 85.5cm, 품 53cm, 진동 33.7cm이다. 이와 비교할 수 있는 저고리는 1623년에 복장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중요민속자료 제3호 ‘광해군 내외 및 상궁옷’가운데 상궁권씨의 옷인 ‘자색 토주(吐紬) 솜 단저고리’가 있다. 자색 토주 솜 단저고리는 자색으로 되어 있고 깃은 목판당코깃이다. 자색 토주 솜 단저고리의 치수는 길이 59cm, 화장 74cm, 품 57.5cm이다.
- 17세기 저고리 가운데 색상이 남아 있는 저고리는 드물다. 위에서 언급한 ‘광해군 비(妃) 중궁유씨의 당의와 상궁권씨의 저고리가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호국지장사 목조여래좌상 복장품 저고리는 17세기에 사용된 여자저고리에서 색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그러나 현재 직물의 상태가 좋지 않으며, 정확한 연대를 밝힐 수 없는 것이 매우 아쉽다. 이런 이유로 호국지장사 목조여래좌상 복장품 저고리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1.02. ()	대상문화재	(가칭)호국지장사 불복장 적고리		
조사자	성명	홍나영	전공 분야	한국복식	
	소속	이화여자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문화재 종류	국가민속문화재			
	문화재 명칭	호국지장사 불복장 적고리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해당없음			
	연혁·유래 및 특징	* 세부 내용 <붙임 1>에 기재			
	지정 가치 및 단기 기준	* 세부 내용 <붙임 2>에 기재			
	지정 대상 및 별의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해당없음			
검토		<보호물> 해당없음			
		<보호구역> 해당없음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해당없음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해당없음			
종합의견		호국지장사 불복장 적고리는 착용자나 발원자 등의 내력이 알려져 있지 않다. 형태상 비교적 긴 적고리의 양옆에 이색의 현을 대어 만든 견마기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식유물이 대부분 출토복식이라 변색되어 원래의 색채를 알기 어려운 것에 비해 불복장유물이라 색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발원문이 없어 착용자를 알수 없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역사적 가치가 미흡하다고 사료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결갑에 끼여 있는 얼룩 외에 유물의 상태가 문제가 없어 보이나, 안감의 손상 정도가 매우 심하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3월 8일

제출자

문화재청장 귀하

연혁·유래 및 특징

- 지정현황 : 현재 미지정
- 명 칭 : (가 칭) 호국지장사 불복장 저고리
(명칭안) 호국지장사 불복장 저고리
- 소 유 자 : 호국지장사
-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불교중앙박물관(위탁보관)
- 수 량 : 1점
- 규격·재질 및 형식 등
 - 규 격 : 가로171×세로64
 - 재 질 : 명주
- 조성연대 : 17세기 전반

○ 현 상

호국지장사(護國地藏寺) 불복장 저고리는 2006년 5월 국립현충원내에 위치한 호국지장사 대웅전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개금할 때 발견된 유물이다.

이 절은 원래의 명칭이 갈궁사(葛宮寺)였으나, 1577년 선조가 그의 친할머니인 창빈안씨(昌嬪 安氏)의 원찰로 지정하면서 화장사(華藏寺)로 개칭하였고, 이후 1983년에는 다시 호국지장사로 개칭되었다.

불복장 저고리는 2006년 5월 호국지장사 개금불사 시 다른 불복장 유물과 함께 발견되었다. 17세기 유물로 추정되고 있는 은제후령통 일괄, 『일체여래심비밀전신사리보협인다라니경(一切如來心秘密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經)』의 다라니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불복장 저고리 역시 형태상으로 17세기 유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당의(唐衣)의 원형이 되는 장저고리가 옆트임이 있는 것에 비해 호국지장사 저고리는 옆이 트이지 않고 이색(異色)의 천을 겨드랑이 아래에 댄 형태로 ‘견마기’라는 저고리에 해당된다.

유물의 걸감은 전체적으로 얼룩이 있으나,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감은 많은 부분이 손상되어 결실되어 있으며, 현재 남아 있는 부분도 부서지기 직전의 상태로 보인다.

○ 내용 및 특징

호국지장사 불복장 저고리는 짙은 초록색(草綠色) 걸감에 깃, 고름, 겹마기에 자색(紫色)을 배색하였다. 깃 모양은 목판당코깃인데 광해군비 중궁 유씨

(1576~1623)의 저고리 깃과 같은 형태이다. 하지만 옷길이는 64cm로 중국 유씨의 저고리보다 12cm 이상 짧고, 옆트임도 없다. 대신 무부분에 이색의 천을 대어 견마기에 해당된다. 견마기는 겹마기라고도 하며 주로 배색천을 대어 예복용으로 입었던 저고리이다. 한자로는 세종실록의 ‘袂隔音’을 비롯하여, 거드랑이를 뜻하는 액(腋)에 마지(𠂔只)를 합성한 ‘腋𠂔只’, ‘肩𠂔只’, ‘肩莫只’, ‘肩莫伊’ 등으로 나타난다.

유물에 사용된 소재는 겉감은 평직의 견직물인 초록색과 자색의 주(紬)이며, 안감은 소색(素色)의 주이다.

○ 문헌자료(없을 경우 생략)

[붙임 2]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호국지장사 저고리는 우리나라의 17세기의 저고리 유물이 대부분 출토복식으로 변색이 되어 원래의 색채를 알수 없는 것에 비해, 이 유물은 불복장유물이기 때문에 원래의 색상에 비교적 근접한 모습을 알려준다. 따라서 호국지장사 저고리는 염료나 색상의 연구자료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

하지만 해당 저고리의 직물이나 형태에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여타의 저고리들과 비교할 때, 차별화할만한 특징이 없는 편이고, 무엇보다 착용자나 발원자에 대한 기록도 없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정도의 역사적인 가치를 충족하지는 못한다고 사료된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1.02. .()	대상문화재	(가칭)호국지장사 불복장 저고리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한국복식
	소 속	○○○	직위(직책)	○○○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민속문화재
	문화재 명칭	호국지장사 불복장 저고리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해당없음
	연혁·유래 및 특징	* 세부 내용 <붙임 1>에 기재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	* 세부 내용 <붙임 2>에 기재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해당없음
		<보호물> 해당없음
		<보호구역> 해당없음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해당없음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해당없음

종합의견	본 자료는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연결 지을 수 있는 착용자 또는 발원자에 대한 단서가 확인되지 않아 역사적 가치 부분이 다소 미흡하며, 안감쪽으로 훼손 상태가 심각하여 활용면에 있어서도 국가지정문화재로는 부적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당시 색상이 남아 있다는 희소성 측면과 옆트임이 있는 장저고리와 구별되는 ‘겉마기’의 특징이 확인되는 의미 있는 저고리로 복식사적 가치는 충분함. 이에, 이를 시문화재로 지정 추진 후 보존처리 정밀진단을 통하여 보다 안전한 상태와 환경에서 보존된 수 있도록 시급한 조치가 요구됨.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2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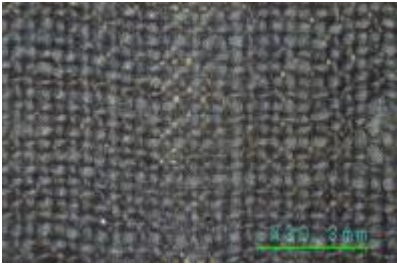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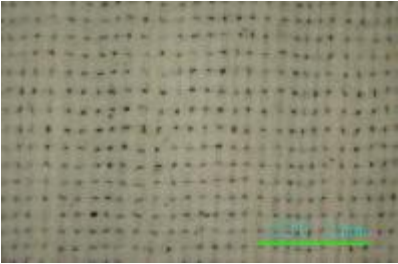
연혁 · 유래 및 특징

- 지정현황 : 현재 미지정
- 명 칭 : (가 칭) 호국지장사 불복장 저고리
(명칭안) 호국지장사 불복장 저고리
- 소유자 : 호국지장사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불교중앙박물관(위탁보관)
- 수 량 : 1점
- 규격·재질 및 형식 등
 - 규 격 : 가로171×세로64
 - 재 질 : 명주
- 조성연대 : 17세기 전반
- 현 상
 - 호국지장사는 국립현충원 내에 위치한 사찰로 처음에는 통일신라 말 도선(道詵) 스님이 창건한 갈궁사(葛弓寺)가 시초이며, 이후 1577년(선조 10) 왕이 창빈안씨(昌嬪 安氏)의 원찰로 지정되어 화장사(華藏寺)로 이름을 고쳤고, 다시 1983년에 국립묘지에 안치된 호국영령들이 지장보살의 원력으로 극락왕생하도록 기원하는 뜻에서 호국지장사(護國地藏寺)로 바꿈.
 - 호국지장사 불복장 저고리는 2006년 5월 호국지장사 대웅전 목조아미타여래좌상 개금불사 시 확인됨.
 - 전체적으로 얼룩이 있으며, 특히 안감쪽으로는 곰팡이, 충해로 인해 많은 부분 창공 확인. 또한 깃·등 부분으로는 안감이 넓게 결실된 상태임. 현재 안감 쪽은 움직일 경우 부서져 분리 우려가 매우 큼. 결감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임. 향후 보존처리에 대한 정밀진단으로 보관과 환경에 대한 간접 및 보수와 같은 직접적인 처리방법 등에 대한 최선의 방법 모색이 시급함.
- 내용 및 특징
 - 호국지장사 불복장 저고리는 결감에 짙은 초록색과 자주색으로 무늬 없는 토주(吐紬), 안감은 소색 주(紬)가 사용됨. 깃은 목판당코깃에 소매는 진동30.5cm에서 수구25.45cm로 살짝 좁아지는 직배레이며, 길이는 64cm로 긴 저고리와 짧은 저고리의 중간 길이인 중저고리 정도로 볼 수 있음. 깃·고름·겨드랑이 아래에 자주색을 사용하였고, 옆은 트임 없이 막힌 형태임. 이러한 저고리는 옆이 트인 장저고리와 구분하기 위해 옆이 막힌 저고리 즉 ‘결마기’라는 명칭 사용. 결마기는 세종대 ‘袂隔音’¹⁾이라는 명칭

1) 세종실록, 세종 2년(1420년) 자적단자결격음(紫的段子袂隔音)

이 처음 보이며, 여기서 격隔은 ‘막는다’의 의미가 있음. 이후 이러한 명칭은 조선 후기 腋尔只·肩尔只·肩莫只·肩莫伊, 결마기 등으로 나타남. 이 자료는 17세기 ‘결마기’라는 명칭은 보이지 않지만 당시 옆이 트인 장저고리(당의)와 구분되어 옆이 막혀 있고 길과 다른 색을 사용하여 장식을 겸한 일명‘결마기’의 실증적 자료를 제공함.

호국지장사 불복장 저고리 상태 및 직물

		
앞	안감의 곰팡이 및 창공 등 훼손 상태	안감의 깃 등 결실 부위
		
겉감 : 심청색 토주	안감 : 주	별색 : 자주색 토주
		
겉감 : 심청색	안감 : 소색	별색 : 자주색

[붙임 2]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본 자료는 착용자나 발원자에 대한 단서가 없어 역사적 가치 부분이 미흡하며, 훼손상태가 심각하여 활용면으로도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국가민속문화재로는 부적합 할 것으로 판단됨. 17세기 저고리의 색을 확인 할 수 있는 희소가치가 높은 자료로 당시 저고리의 형태 및 봉재법 그리고 색상을 통한 염색의 연구 등 자료적 가치는 충분함. 때문에 이를 서울시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처리에 대한 정밀 진단 및 처리로 복식문화재의 보존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8 - 250 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고시

「문화재보호법」 제70조,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 사실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9일
서울특별시장

1.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개요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지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보관장소 (소유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26호	지장사 목조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地藏寺 木造如來坐像 및 腹藏遺物)	불상1구 복장1건	목조여래좌상 높이 63 슬폭 48 복장유물(후령통) 전체 높이 11.8 직경 5.1 몸통 높이 8	조선시대	동작구 현충로 210 (대한불교 호국지장사)

■ 지장사 목조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호국지장사 대웅전에 모셔진 목조여래좌상은 전체적으로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불상 양식을 따르고 있음. 불상의 내부에 봉안되어 있던 조성발원문 등의 복장물 대부분이 산일되어 현재 불상과 후령통, 저고리 등이 남아있으나, 조성발원문은 전하지 않음.

목조여래좌상은 얼굴의 이목구비에서 풍기는 인상이나, 오른쪽 어깨와 하반신에 걸친 대의자락에 자연스러운 볼륨감이 표현된 점에서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불복장 유물인 후령통은 제작기법과 형태면에서 1639년에 제작한 수덕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의 온제 후령통과 형태, 제작수법이 동일하여, 제작 시기를 1639년 전후로 추정이 가능함. 따라서 후령통과 불상의 제작 시기가 유사함.

비록 조성발원문은 없으나 불상의 뛰어난 양식과 온제 후령통의 제작방식 등에서 조선시대 복장유물의 좋은 자료로 그 가치가 인정되므로, 불상과 후령통을 함께 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함.



목조여래좌상



복장유물(후령통 일괄)

8. 왕가 어린이 옷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 용산구 소재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왕가 어린이 옷」을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이 1998년 해당 대학교 소속 교수(김명자)로부터 기증 받은 사규삼 및 창 의 등 왕가 어린이 옷 일괄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신청('20. 6. 22.)함에 따라, 관계전문가 지정조사('21. 3. 26.)를 실시하고,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 * 해당 유물은 영친왕비 이방자여사(1901~1989)가 김명자(숙명여자대학교 교수)의 모친에게 전달(정확한 전달시기는 알 수 없음)한 것을 1998년 소속 학교 박물관에 기증한 것임.
- 본 안건은 당초 등록문화재로 신청된 건이나, 등록조사 과정에서 국가민속문화재 영친왕 일가 복식과의 유사성 및 연관성 등으로 인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추진하게 된 건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숙명여자대학교
- (2) 대상문화재 : 왕가 어린이 옷
 - 소 장 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 소 유 자 : 숙명여자대학교
 - 수 량 : 9건 12점
 - 사규삼 및 창 의 1건 2점, 두루마기 1건 1점, 저고리 1건 1점, 색동마고자 1건 1점, 소재 풍차바지 1건 1점, 분홍 풍차바지 1건 1점, 조끼 1건 1점, 버선 1건 2점, 타래버선 1건 2점
- (3) 추진경과
 - ('17. 12. 13.)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
 - ('20. 6. 22.) 국가민속문화재(무형문화재과) 지정 추진(이첩)
 - ('21. 3. 26.) 지정조사 실시

라. 지정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문화재위원 ○○○>

- 왕실 어린이 옷 관련 기록은 발기[件記]나 《의대목록》 등의 고문서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실제 현전하는 유물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왕세자 어린이옷(왕세자 사규삼·창의, 진분홍 두루마기, 저고리, 풍차바지 2점, 조끼, 타래버선) 외에는 없음.
- 착용자에 대한 정보는 추후 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소재와 단추 등의 장식, 부금 문양 등에서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의 유사성이 확인되므로 왕가 어린이옷 일괄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무형문화재위원 ○○○>

-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사규삼 및 창의’와 ‘왕자 복식 일습’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국가민속문화재 제265호 ‘영친왕 일가 복식 및 장신구류’ 가운데 ‘왕세자 복식’과 형태와 크기, 직물 등이 유사함. 영왕이 착용했다고 전해오나, 직물 등을 고려할 때는 1930년대 경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나 정확한 것을 알 수 없음.
-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사규삼 및 창의’와 ‘왕자 복식 일습’은 동일한 가문의 복식으로 생각되므로 2건을 함께 ‘왕가 어린이 옷 일괄’로 지정하기를 권함.

<전 무형문화재위원 ○○○>

- 이 복식 유물들은 기증자에 의하면 영친왕의 옷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며, 고궁박물관 소장 이구의 유물이나 덕혜옹주의 유물과 비교해도 유사한 점이 많아 왕실의 어린이 옷일 가능성은 높지만, 치수 등으로 보아 착용시기 등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음.
- 해당 유물들 중 사규삼은 왕실과 반가에서 돌 옷과 관례 시 초출복 등 예복으로 착용되었던 복식으로 남아있는 유물이 매우 드뭄. 사규삼과 창의를 함께 징겨 착용하도록 만든 것이며, 저고리와 두루마기의 돌띠 방식의 고름은 어린이를 위한 배려, 색동 마고자, 풍차바지, 타래버선 등에서 조선시대 왕실과 반가에서 사용된 어린이 복식의 특징이 잘 나타남.
- 의복의 소재와 직물과 부금의 문양도 19세기말~20세기 전반부에 유행하였던 것임. 대부분의 옷이 손바느질이지만, 사규삼의 일부와 조끼에 재봉틀을 사용하고 있어, 봉제방법의 시대의 변화와 서구문화의 영향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이 유물들은 20세기 초 왕실 어린이 복식 연구는 물론 직물과 금박 문양, 바느질 방법의 변화, 배색 등에 대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유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음.

<경기도박물관 연구원 ○○○>

- 숙대박물관 소장 <왕가 어린이옷 일괄> 중 사규삼 및 창의를 착장자와 전래 경로가 전해지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가 없어 현재로서는 이를 영친왕의 것으로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그러나 그 외 함께 기증된 왕가 어린이옷 8건 10점과는 형태, 직물, 구성면에서 품격에 차이를 보이는 바 특별히 구분해 기증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사규삼 및 창 의 이외 일괄 기증된 8건 10점의 옷은 직물, 형태, 구성 면에서 이구 왕자의 것으로 전해진 것과 대동소이 한 점으로 보아 이들 옷 역시 왕가의 어린이 옷으로 판단됨.
- 왕가의 어린이 복식은 구 왕자의 옷 이외에는 전해지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희소성이 높으며, 왕실의 품격이 남아 있는 어린이 복식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예상되는 바 그 가치가 인정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지정 명칭을 ‘전(傳) 영친왕 일가 어린이 옷’할 것

- 붙임 1. 왕가 어린이 옷 상세 목록 1부.
2. 왕가 어린이 옷 지정조사보고서 1부.

붙임1

왕가 어린이 옷 상세목록

세목번호	유물사진	유물정보		그 밖의 특징
1		명칭	사규삼 및 창의	분홍색 사규삼 아래 녹색 창의를 받침옷으로 하여 두 개의 옷을 한꺼번에 입을 수 있도록 어깨와 수구가 징겨져 있음
		재료	○사규삼 : 숙고사 / 부금 ○창 의 : 향라 / 부금	
		구조 형식 형태	○사규삼 : 소매가 넓고 옆선이 길게 트인 맞깃의 세 자락 옷 ○창 의 : 곧은 깃의 교임식 광수 뒤 트임 옷	
		규격 (cm)	○사규삼 : 길이 70, 화장 53, 품 32, 고대 12, 수구 28.5 ○창 의 : 길이 68, 화장 53, 품 33, 고대 13, 수구 32.5	
		수량	1건 2점	
2		명칭	두루마기	고름은 겹고름 4.5cm×74cm, 안고름 4.5×41.5cm를 남색으로 길게 달아 허리에 두르고 앞으로 매도록 구성
		재료	○겉감 및 고름 : 생고사 ○안감 : 생명주	
		구조 형식 형태	분홍색 생고사 겉감에 진분홍 생명주 안감을 넣어 손바느질로 제작한 춘추용 겹두루마기	
		규격 (cm)	길이 66, 화장 38.8, 품 38, 고대 12.5, 수구 12.8	
		수량	1건 1점	
3		명칭	저고리	고름은 청색 생고사로 겹고름 4.5×73cm, 안고름 4.5cm×41cm를 두루마기처럼 돌띠고름으로 달았음
		재료	○겉감 및 고름 : 생고사 ○안감 : 생명주	
		구조 형식 형태	원형수자문과 호로문이 시문된 진분홍색의 생고사 겉감과 평직의 소색 생명주를 안감으로 넣어 손바느질로 제작한 춘추용 겹저고리	
		규격 (cm)	길이 32, 화장 36.8, 품 32, 고대 11, 수구 12	
		수량	1건 1점	

세목번호	유물사진	유물정보		그 밖의 특징
4		명칭	색동마고자	양쪽 옆선 아래 도련에서부터 겨드랑이 쪽으로 5.7cm 정도 트임이 있으며, 색동 소매 중에 사규삼 안창의에 사용된 초록색 향라가 포함되어 유물의 연관성이 짐작됨
		재료	○겉감 : 숙고사 ○안감 : 명주 ○색동 : 견직물(숙고사 및 문향라 등)	
		구조 형식 형태	저고리 위에 덧입는 옷으로 깃이 따로 없으며 여밈이 중심에서 만나는 대금형	
		규격 (cm)	길이 32, 화장 42, 품 33, 고대 10.8, 수구 12.5	
		수량	1건 1점	
5		명칭	소색 풍차바지	앞쪽 허리에 홍색 박쥐모양 장식단추 3개를 장식으로 달았음 허리끈은 바느질 없이 풀칠로 붙임
		재료	○겉감 및 대님 : 생고사 ○안감 : 생명주 ○ 끈 : 명주	
		구조 형식 형태	어린이용으로 용변이 용이하도록 뒤가 트인 바지	
		규격 (cm)	마루폭길이 61, 허리 6×56.5, 허리끈 4.3×71, 부리 14, 대님 2.5×37.5	
		수량	1건 1점	
6		명칭	분홍 풍차바지	겉감은 원형의 작은 꽃, 원형학무늬, 원형수복(壽福)자무늬, 원형호로무늬 등이 있는 분홍색 양단, 안감과 허리단은 흰색 무명을 사용한 솜 풍차바지
		재료	○겉감 : 화문단(양단) ○대님 : 화문단(모본단) ○안감, 끈, 허리 : 면	
		구조 형식 형태	어린이용으로 용변이 용이하도록 뒤가 트인 바지로, 솜을 얇게 둔 겨울용	
		규격 (cm)	마루폭길이 60.6, 허리 7×56, 허리끈 4.5×74.3, 대님 3×55	
		수량	1건 1점	
7		명칭	조끼	여밈은 3단의 꽃모양 파란(범람) 단추를 달고, 단추구멍은 홀스티치로 손바느질 되어 있음. 새 옷으로 위아래 주머니 사이에 길게 징금한 실이 좌우에 있음
		재료	숙고사	
		구조 형식 형태	겉감은 원형자수문과 호로문의 진분홍 숙고사, 안감은 겉감과 같은 문양의 노랑색 숙고사로 재봉틀 바느질 제작	
		규격 (cm)	길이 32.7, 품 32.5, 고대 11.6, 어깨너비 4.5, 진동 16, 옆선길이 15.9	
		수량	1건 1점	

세목번호	유물사진	유물정보		그 밖의 특징
8		명칭	버선	버선코에는 홍색의 명주실을 사용한 사뜨기와 술이 달려 있으며 상단에 박지모양 장식단추가 달려 있음
		재료	소색 무명	
		구조 형식 형태	4~5세용 숨버선	
		규격 (cm)	길이 23.3, 발길이 17, 목너비 12.8	
		수량	1건 2점	
9		명칭	타래버선	버선코에는 홍색 사뜨기와 홍색 술이 달려있으며 상단에 박쥐모양 장식단추와 사뜨기 장식이 있음. 새 타래버선으로 청색 끈에 장수를 의미하는 홍색실로 八자와 十자로 고정하였음
		재료	○겉감, 안감 : 소색 무명 ○대님 : 남색 명주	
		구조 형식 형태	0.6~0.7cm 간격으로 손으로 누빈 숨누비 버전	
		규격 (cm)	길이 18.5, 발길이 14.5, 목너비 12.5	
		수량	1건 2점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1.03.26.(금)	대상문화재	(가칭) 사규삼 및 창의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한국복식사
	소 속	○○○	직위(직책)	○○○
주요 지정 사항	문화재 종류	국가민속문화재		
	문화재 명칭	왕가 어린이옷 일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해당없음		
	연혁·유래 및 특징	* 세부 내용 <붙임 1>에 기재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	* 세부 내용 <붙임 2>에 기재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해당없음 <보호물> 해당없음 <보호구역> 해당없음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해당없음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해당없음		
종합의견		왕실 어린이 옷 관련 기록은 발기[件記]나 《의대목록》 등의 고문서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실제 현전하는 유물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왕세자 어린이옷(왕세자 사규삼·창의, 진분홍 두루마기, 저고리, 풍차바지 2점, 조끼, 타래버선) 외에는 없음. 착용자에 대한 정보는 추후 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소재와 단추 등의 장식, 부금 문양 등에서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의 유사성이 확인되므로 왕가 어린이옷 일괄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5월 6일

제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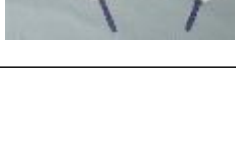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연혁 · 유래 및 특징

- 지정현황 : 현재 미지정
- 명 칭 : 왕가 어린이옷 일괄
- 소 유 자 : 숙명여자대학교
-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 수 량 : 10건 12점
- 규격·재질 및 형식 등 : 비단류
- 조성연대 : 20세기 전기
- 현 상 : 상태 양호
- 내용 및 특징 : “세부 내용 별첨 참조”

【표 1】왕가 어린이 옷 일괄(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번호	유물	명칭	세부사항
1		사규삼	- 숙명여대 김명자 교수가 이방자 여사에게 1960년대 초에 받은 사규삼·창의를 1998년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에 기증한 것이라고 함. - 분홍 숙고사 사규삼에 초록 문항라(숙수) 대창의를 받침 옷으로 겹쳐 고대 등을 징거 둠.
2		창의	- 사규삼에는 원래 2쌍의 밑화 암수단추가 사용되었으나 아래쪽 암단추는 소실된 상태 - 길이 71, 화장 53cm(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이구(李玖, 1931~2008) 사규삼 길이 62.5, 화장 46cm) - 부금 문양은 이구의 1932년 돌복 사규삼보다 고식(古式)으로 보이며 상태는 정교하지 않은 편임.
3		두루마기	- 길이 66, 화장 38.8cm - 분홍색 생고사 겹감에 진분홍 생명주 안감을 넣어 손바느질로 제작한 춘추용 겹두루마기. - 남색 생고사의 '돌띠 고름'
4		저고리	- 뒷길이 32, 화장 36.8, 뒤편 32cm - 단수문과 호로문이 시문된 진분홍색의 생고사 겹감과 평직의 소재 노방을 안감으로 넣어 만든 여름 전후로 입는 춘추용 겹저고리
5		색동마고자	- 겹감 남송색 숙고사, 안감 진분홍 명주. 손바느질로 제작 - 길이 32, 화장 42, 뒤편 33cm - 색동: 9종의 소재를 22줄 연결(너비 1.5cm)
6		풍차바지	- 마루폭길이 61, 밑길이 41.5, 바지통 34.5, 바지부리 14, 허리말기 6×56.5, 끈 4.3×71cm - 용변 가리기 이전의 어린이용 뒤트임 바지 - 겹감 소재 생고사, 안감 소재 명주, 대님 남색 생고사, 허리감 모시, 앞쪽 허리 중심에 3개의 홍색 박쥐매듭단추 장식, 손바느질

번호	유물	명칭	세부사항
7		풍차바지	- 마루폭길이 60.6, 밑길이 41.5, 바지통 31, 바지부리 17, 허리말기 7×56, 끈 4.5×74.3cm - 용변 가리기 이전의 어린이용 뒤트임 바지 - 겉감 분홍 화문단, 안감 소색 무명, 대님 남색 대화단, 진분홍색 비단 박쥐장식, 손바느질
8		조끼	- 길이 32.7, 뒤폭 32.5, 고대 11.6, 어깨너비 4.5cm - 겉감 진분홍 숙고사, 안감 노란색 숙고사, 단추 은파란(이화문), 가장자리 0.5cm 기계침 상침 - 주머니(웰트포켓) 4개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생고사 조끼와 유사(주머니 개수(4개), 단추·버튼홀 동일)
9		버선	- 버선길이 23.3, 발길이 17, 목너비 12.8, 회목너비 17.3, 볼너비 7, 수늑길이 21.2cm - 겉감 소색 무명, 안감 소색 무명, 손바느질 - 홍색사 상모·사뜨기 장식, 4~5세용 소색 무명 솜버선 - 버선목 중간에 홍색 실로 고정
10		타래버선	- 버선길이 18.5, 발길이 14.5, 목너비 12.5, 뒤목길이 5.5, 수늑길이 13, 남색 대님 2×25cm - 솜누비(손누비·기계침), 겉감 소색 무명, 안감 소색 무명, 누비간격 0.6~0.7cm - 대님을 버선에 돌려 감은 후 홍색실로 '八', '十'자를 수놓아 고정함. 새 버선임을 의미하며 80살까지 장수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음.

○ 문헌자료

- 『敎學定例』, 『四禮便覽』
- 국립고궁박물관(2010), 『영친왕 일가 복식』.
- 국립문화재연구소(2006), 『우리나라 전통 무늬1 직물』, 놀와.
- 국립문화재연구소(2010), 『일본 문화학원 복식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 金三不(1949), 『國語學參考圖鑑』, 新學社.
- 金英淑·朴允美(2007), 『朝鮮朝 王室服飾』, 十月.
- 노자키 세이킨(2011), 『중국미술상징사전』, 변영섭·안영길 옮김, 고려대학교출판부.
- 孫貞圭(1948), 『朝鮮裁縫』, 三中堂.
-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1998), 『숙명사랑기증전 1994~1998』.
- 심연옥(2002), 『한국 직물 오천년』, 고대직물연구소 출판부.
- 원광디지털대학교·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2015), 『소곤소곤 나누는 청과동이야기』.
- 이은주(2001), 「17세기 전기 현풍 광씨 집안의 의생활에 대한 소고」 『服飾』 51(8).
- 이훈중(1970), 『국학도감』, 일조각.
- 진덕순·이은주(2016), 「1932년 왕손 이구(李玖)의 『의대목록』 복식에 관한 연구」 『古文書研究』 49.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20세기 전기 유물인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왕가 어린이옷 일괄 10건 12점은 보존 상태가 좋으며 당시의 왕가 복식 종류나 소재, 구성법 등을 알 수 있는 공예적 가치가 인정되며 현전하는 20세기 왕가 어린이옷 유물로는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왕세자 어린이옷(왕세자 사규삼·창의, 진분홍 두루마기, 저고리, 풍차바지 2점, 조끼, 타래버선) 외에는 없기 때문에 자료의 희귀성으로 볼 때도 지정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착용자에 대한 정보는 추후 더 조사가 되어야겠으나 19세기 후기 이후 왕실 어린이 옷 관련 기록으로 발기[件記]나 《의대목록》 등의 고문서가 있으므로 비교 연구할 수 있는 학술적 자료로 의미있음.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의 유사성(소재와 단추 등의 장식, 부금 등)이 확인되므로 왕가 어린이옷 일괄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어린이옷과 함께 비교 연구·전시되면 전공자에게는 물론, 일반인에게 왕가 어린이 복식을 알리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됨.

【별첨】

- 지정현황 : 현재 미지정
- 명 칭 : 왕가 어린이옷 일괄
- 소 유 자 : 숙명여자대학교
-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 수 량 : 10건 12점
- 규격·재질 및 형식 등 : 내용 및 특징 참조
- 조성연대 : 20세기 전기
- 현 상 : 상태 양호
- 내용 및 특징

1. 사규삼



【그림 1】 사규삼 · 창의

◆ 구성 : 홑(손바느질, 재봉틀 바느질)

◆ 소재

- 길·소매 : 분홍 숙고사(원형수자문·호로문 별문숙사, 19세기 말~20세기 전기 유행 소재) [참 1932년 「의더목록」 “분홍별문숙사 겹두의”²⁾
- 흑선 : 숙고사

2) 국립고궁박물관(2010), 『영친왕 일가 복식』, 518쪽.

- 동정 : 흰색 숙고사
- 단추 : 2쌍의 이화문 밀화단추(암단추 직경 1.8~1.9cm, 숫단추 1.2 × 0.4cm)가 사용되었으나 현재 아래쪽의 이화문 암단추는 소실된 상태. 암수단추의 색상과 재질이 다르고 고정실 색상도 다름. 하나 달려 있는 암단추는 본래의 단추가 아닐 가능성 있음.
- 부금 : 금박



【그림 2】 사규삼
소재·문양(사방 10cm)



【그림 3】 사규삼
소재 확대(사방 1cm)



【그림 4】 동정
숙고사



【그림 5】 사규삼
단추



【그림 6】 자마노
암단추



【그림 7】 밀화
숫단추

◆ 치수(단위 : cm)

- 길이 71, 화장 53, 깃너비 3, 깊깊이 16.5, 선너비 3.8, 뒤품 32, 고대 12, 진동 18.2, 소매너비 30.5, 길너비 15
- [참고]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사규삼 길이 62.5, 화장 46, 깃너비 2.7, 뒤품 36, 고대 11.5, 진동 19, 수구 28.5

◆ 형태 및 구성법

- 소매가 넓고 옆선이 길게 트인 맞깃[대금(對襟)]의 세 자락 옷.
- 겹감 쪽에 가장자리 흑선을 두름. 흑선에는 부금 장식이 있음.
- 등솔기 : 입어서 오른쪽.
- 깃 : 흑색 문사 깃에 부금 장식(연방문³⁾·이화문). 깃 가장자리 재봉틀 바느질 (재봉틀 박음질). 사규삼과 창의의 고대 부분 징귀 고정시킴.
- 소매 : 길과 소매 솔기선은 가름솔 처리. 수구 14.5cm 내려온 부분에 홍색 박쥐 단추를 달고 아래쪽은 0.5cm 간격으로 징금.
- 선단 먼저 처리한 후 아래 도련단 처리.

◆ 부금 위치별 문양

- 길상어문과 연방문, 이화문, 편복문, 수(壽), 복(福) 등의 부금장식
- 글자 사이 사이에 원형수자문(圓形壽字紋, 團壽紋, 圓壽紋) 배열함.
-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문구 나열함.
- 부금 상태는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이구(李玖, 1931~2008)의 1932년 돌복 사규삼⁴⁾보다 정교하지 않고 접착제도 번짐. 직물의 조직 차이 때문이거나 보관 불량 등의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깃】 연방문(蓮房紋), 이화문
- 【앞길중앙】 [좌]박쥐 원형수자문 수여금석(壽如金石), [우]박쥐 원형수자문 장의자손(長宜子孫)
- 【앞길옆선】 [좌]영언배명(永言配命), [우]자구다복(自求多福)⁵⁾
- 【뒷길옆선】 [좌]자손창녕(子孫昌寧), [우]수복강녕(壽福康寧)
- 【앞길소매】 [좌]다남자(多男子), [우]수부귀(壽富貴)
- 【뒷길소매】 [좌]수여산(壽如山), [우]부여해(富如海)
- 【밑단앞뒤】 [좌]만(萬)-수(壽)-무(無)-강(疆)[우]

3) 위의 책, 202쪽. 수사기의 동일 부금 문양에 대해 “연방문”이라고 명명함.

4) 위의 책, 112쪽.

5) 위의 책, 149쪽.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다홍대화단부금전대”의 부금 문구와 일부 일치함. “壽如金石 長宜子孫 永言配命 自求多福 安樂長春 吉祥如意”.



【그림 8】 사규삼 깃
부금 문양



【그림 9】 연방문
(직경 1.2cm)



【그림 10】 이화문
(2.7×3.4cm)



【그림 11】 사규삼
박쥐문(1)(3.6×4.1cm)



【그림 12】 사규삼
복자문(2.5×2.7cm)



【그림 13】 사규삼
수자문(2.5×3.1cm)



【그림 14】 사규삼
박쥐문(2)(2.3×3.4cm)



【그림 15】 사규삼
부자문(2.8×3.0cm)



【그림 16】 사규삼
원형수자문(직경 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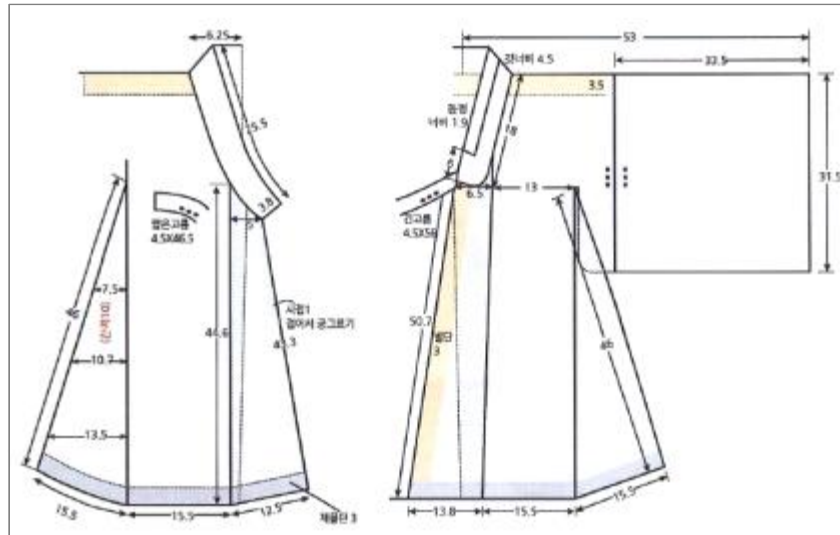
◆ 용도

- 조선시대 동자복으로 착용하던 옷 중의 하나. 중국 예를 수용한 집안에서 특히 즐겨 착용함. 또한 『사례편람』⁶⁾ 등의 예서에는 관례 때의 초출복(初出服)으로 기록되어 있음.
- 고종 초 『교학정례(敎學定例)』, 대군의 시복(時服)으로 규정.
- 19362 이구(李玖, 1931~2008) 왕자의 돌복 물품 중에도 포함되어 있고 국립고궁박물관에 이구의 돌복 사규삼 유물이 소장되어 있음.
- 이 유물은 영친왕이 10세 때 입었던 사규삼이라고 전해지고 있지만⁷⁾ 크기로 보

6) 『四禮便覽』 卷1, 冠 11전.

7) 원광디지털대학교 ·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2015), 『소곤소곤 나누는 청파동이야기』. 8쪽.

2. 창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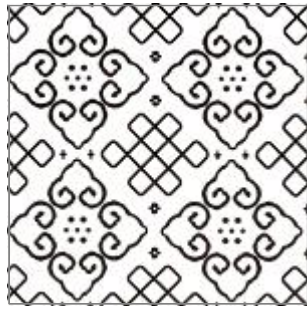
【그림 17】 창의 실측도

- ◆ 구성 : 흘(손바느질)
- ◆ 소재
 - 걸감 : 7족 문항라(위부직緯浮織의 반장문과 마름문)
 - 동정 : 흰색 숙고사
 - 부금
 - 깃 : [좌] 안락장춘(安樂長春)+원형수자문 [우] 길상여의(吉相如意)⁸⁾
 - 좌우 고름 壽·福(긴고름 수복 3쌍, 짧은고름 복1+수복 3쌍)
 - 수·복·원형수자문은 사규삼에 사용한 것과 같은 문양임.

- 46 -



【그림 18】 창의 소재
(문향라, 사방 1cm)



【그림 19】 창의
문양(반장문 · 능화문)



【그림 20】 마름문
(2.7×2.7cm)



【그림 21】 반장문(2×1.6cm)



【그림 22】 창의 동정
숙고사



【그림 23】
손바느질용 실



【그림 24】 깃
길상문자문



【그림 25】 창의
부금 위치와 문양



【그림 26】
뒤트임(안)



【그림 27】 창의
수자문(2.5×3.1cm)



【그림 28】 창의
복자문(2.5×2.7cm)



【그림 29】 창의
원형수자문(직경 2cm)

◆ 치수(단위 : cm)

- 길이 앞69 · 뒤68, 화장 53, 진동 18, 소매너비 31.5, 수구 31.5
- 겹섶너비 상6.5 · 하13.8, 안섶너비 상5 · 하12.5

- 깃 4.5×56, 고대 13, 어깨바대 7.5×45
- 뒤폭 33, 뒤길 밑너비 31, 뒤트임 46.5
- 긴고름 4.5×56, 짧은고름 4.5×46.5(시접 하향)

◆ 형태

- 끈은 깃의 교임식 광수 뒤트임 옷. 대창의(大昌衣)라고도 하였음.
- 흙질로 손바느질한 홑옷으로, 술기는 처리를 하지 않고 푸서로 둠.
- 앞·뒤길 좌우에 삼각형 무를 달아 연결하였으며 트임없이 앞뒤 무를 이어 붙임.
- 등술기는 식서 쪽을 넓게 이용해서 흙질하고 가름술하되, 트임 부분에는 식서를 접어 넣어 처리함.
- 깃은 둥그레깃을 달고 겹깃에 ‘安樂長春-원형수자문’ 부금하고 안깃에 ‘吉祥如意’를 부금함.
- 밑단은 제물단으로 접어 올려 공구르기하였음.
- 겹고름은 등 뒤로 돌려 묶을 수 있게 길게 제작하여 달고 안고름은 짧게 달았는데 양 끝에 ‘壽福’을 세 번 반복하였으며 짧은 고름으로 고리를 만들었을 때 고리 중간 위치에 ‘福’ 하나를 부금하였는데 고름을 매었을 때 ‘복’자가 바로 설 수 있게 다른 문자와 달리 90도 회전시켜 부금함.

◆ 용도 : 사규삼의 받침옷[內作].

◆ 기 타

- 1932년 이구 왕자 돌복으로 마련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유물.



【그림 30】 사규삼(초록대화단부금사계삼)과 내작 창의(다홍대화단창의니작)
(국립고궁박물관, 2010, 『영친왕 일가 복식』, pp.108~109, 112)

3. 두루마기



【그림 31】 분홍 생고사 겹 두루마기

◆ 구성 : 겹(손바느질)

◆ 소재

- 겹감 : 분홍 생고사(별문사(別紋紗)⁹⁾ · 별문생고사(別紋生庫紗)¹⁰⁾)
- 안감 : 진분홍 생명주
- 동정 : 흰색 생고사
- 고름 : 남색 생고사

◆ 생고사 문양

- 원형수자문, 호로문(葫蘆紋).
- 호로문은 만대(萬代)라는 의미를 지님. 또한 줄기에 열매가 줄줄이 달리기 때 문에 자손 번성을 상징함.¹¹⁾
- 19세기 말~20세기 전기 유행 소재
- 이 문양의 직물은 ‘별문사’ 또는 ‘별문생고사’라고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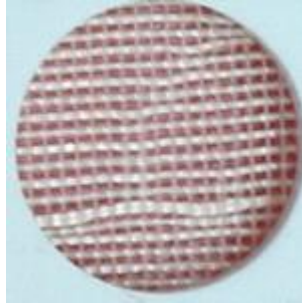
9) 국립고궁박물관(2010), 『영친왕 일가 복식』, 122~123쪽.

10) 심연옥(2002), 『한국 직물 오천년』, 고대직물연구소 출판부, 197쪽. ‘수자호로문 생고사’

11) 노자키 세이킨(2011), 『중국미술상징사전』, 변영섭 · 안영길 옮김, 고려대학교출판부, 210쪽.



【그림 32】 겹감
생고사·문양(사방 10cm)



【그림 33】 두루마기
소재 확대(사방 1cm)



【그림 34】 동정
소재 흰색 생고사

◆ 치수(단위: cm)

- 길이 66, 화장 38.8, 깃너비 4.2, 깃길이 51.5, 동정 1.5×42.5, 뒤품 38,
- 고대 12.5, 진동 17.5/17.8, 소매너비 17.8, 수구 12.8, 뒤길 밑너비 55,
- 겹섶너비 상5.7·하13, 안섶너비 상5·하10.8,
- 겹고름 4.5×74, 안고름 4.5×41.5

◆ 형태 및 구성법

- 분홍색 생고사 겹감에 진분홍 생명주 안감을 넣어 손바느질로 제작한 춘추용 겹두루마기.
- 고름 : 남색 생고사. 흔히 ‘돌띠 고름’이라고 부르는 긴 겹고름을 달아 등뒤로 한바퀴 돌려서 앞으로 매도록 함. 고름 시접은 하향.
- 등솔기 : 겹감과 안감의 솔기가 겹치지 않게 좌우로 나뉘어 있음.
- 겹섶 솔기는 섶쪽으로, 안섶 솔기는 길쪽을 향함. 소매는 가름솔 처리.
- 전체적으로 시접 정리 등이 잘 정리되어 있음.



【그림 35】
깃·동정·고름



【그림 36】 고름
소재 남색 생고사



【그림 37】 고름
구성법(겹)



【그림 38】
깃 · 동정 · 고름



【그림 39】 고름
구성법(안)



【그림 40】 소매 솔기
및 겨드랑이 구성법

4. 저고리



【그림 41】 진분홍 색고사 겹 저고리

- ◆ 구성 : 겹(손바느질)
- ◆ 소재
 - 겹감 : 진분홍색 색고사
 - 안감 : 소색 노방
 - 동정 : 순인고름 : 남색 색고사
- ◆ 문양 : 원형수자문 · 호로문(겹감 · 고름감), 순인(동정)



【그림 42】 겹감
소재 · 문양(색고사)



【그림 43】 동정
소재 · 문양(순인)



【그림 44】 고름
소재 · 문양(색고사)

- ◆ 치수(단위 : cm)

- 뒷길이 32, 화장 36.8, 깃너비 3.8, 깃깊이 14,
- 진동 15.8, 소매너비 15.8, 수구 12,
- 뒤폭 32, 고대 11, 뒤길 밑너비 34
- 겹섶너비 상5·하7.5, 안섶너비 상3.5·하6
- 겹고름 4.5×73, 안고름 4.5×41

◆ 형태 및 구성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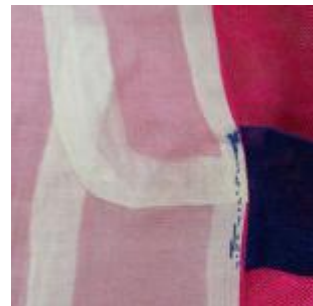
- 원형수자문과 호로문이 시문된 진분홍색의 생고사 겹감과 평직의 소색 노방을 안감으로 넣어 만든 여름 전후로 입는 춘추용 겹저고리임.
- 전체적으로 시접은 1.5cm 너비로 잘라냈으며 손바느질로 제작함.
- 등술기는 착용하였을 때 안팎 모두 입어서 오른쪽을 향하도록 한 방향으로 보냈으며 2.5cm 간격으로 한땀 상침.
- 겹섶 시접은 섶을 향하고 안섶은 길쪽 향함. 소매는 가름술 처리.
- 고름은 남색 생고사를 사용하였으며 두루마기처럼 돌띠 고름을 달았음. 고름 시접은 하향.
- 동정은 흰색 순인을 사용하였는데 끝을 뽕족하게 마무리함.



【그림 45】 깃과 동정



【그림 46】 고름(겉)



【그림 47】 고름(안)

5. 색동마고자



【그림 48】 색동마고자

◆ 구성 : 겹(손바느질)

◆ 소재

- 겹감 : 연두색 숙고사(원형수자문, 호로문)
- 색동 : 9종의 소재를 22줄 연결(좌우 대칭, 색동너비 1.5cm 정도)
- 안감 : 진분홍 명주



【그림 49】 22조각 색동(다홍색~부금 청색 끝동)

- (1) 다홍색 숙고사 : 5조각(국립고궁박물관 영친왕 곤룡포 동일)
- (2) 남색 숙고사 : 4조각(국립고궁박물관 부금남색조끼감 동일)
- (3) 진분홍 숙고사 : 3조각(진분홍 조끼 겹감 동일)
- (4) 노란색 숙고사 : 3조각
- (5) 연두색 숙고사 : 2조각(색동등걸이 겹감)
- (6) 분홍 숙고사 : 1조각
- (7) 연분홍 숙고사 : 2조각
- (8) 녹색 문향라 : 1조각(분홍사규삼 받침 녹색 창의 동일)
- (9) 자적 숙고사 : 1조각

◆ 부금 문양



【그림 50】
겉감 숙고사
소재·문양(사방 1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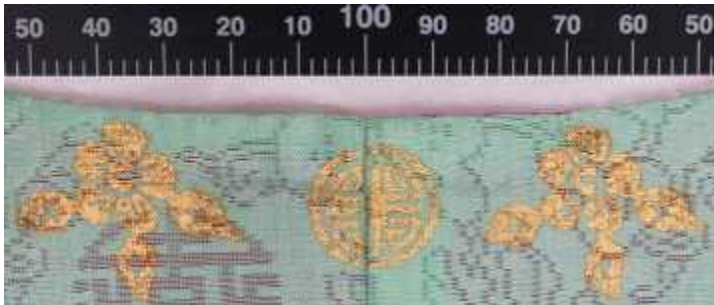


【그림 51】
끝동 소화문
부금(사방1cm, 총 9개씩)



【그림 52】
깃 이화문 부금(사방
3.5cm, 3개씩)

- 수구 : 소화문
- 앞목선 : 좌우에 각각 이화문 3개씩(사규삼 깃에 사용한 문양과 동일)
- 뒤고대 : 화문-원형수자문-화문



【그림 53】 고대 화문·원형수자문·화문 부금
(총 너비 10.5cm)



【그림 54】
암단추(안)

◆ 치수(단위 : cm)

- 길이 32, 화장 42, 어깨너비 4.2, 목깊이 12.5, 앞길밑너비 20+1.5(세너비)
- 진동 16.5, 소매너비 16.5, 수구 12.5, 소매색동너비 1.5
- 옆선길이 13.5, 옆트임 길이 5.7
- 뒤폭 33, 고대 10.8, 뒤길 밑너비 37

◆ 형태 및 구성법

- 색동등거리는 까치등거리¹²⁾, 색등거리¹³⁾, 또는 색동마고자라고도 함.겉감은 남송 색 숙고사이고, 안감은 진분홍 명주. 손바느질로 제작함.
- 깃 둘레 좌·우에 각각 꽃문양 3개씩을 부금.
- 양쪽 옆선아래를 도련에서부터 겨드랑이 쪽으로 5.7cm 정도 트임.
- 8종의 소재(색상)를 22 조각(너비 1.5cm씩)을 이어 붙인 색동 소매. 색동 중 영친왕의 창의에 사용된 직물인 초록색 향라 포함. 국립고궁박물관 남색 조끼(의

12) 金三不(1949), 『國語學參考圖鑑』, 新學社, 6쪽.

13) 이훈중(1970), 『국학도감』, 일조각, 21쪽.

상 474)¹⁴⁾와 같은 소재도 있음.

- 왼쪽 길에 암단추 2개를 달았음. 솟단추 달렸던 흔적은 확인 안됨.

6. 풍차바지 1 (소색 풍차바지)



【그림 55】 소색 생고사 풍차바지(뒷면)

◆ 구성 : 겹(손바느질)

◆ 소재

- 겹감 : 소색 생고사
- 안감 : 소색 명주
- 대님 : 청색
- 허리말기 : 소색 모시
- 박쥐장식 : 진분홍색 견직물

◆ 치수(단위 : cm)

- 마루폭길이 61, 밑길이 41.5, 바지통 34.5, 바지부리 14
- 밑트임 17.5, 배래막힘 14
- 뒤무(뒤밑) 길이 43, 뒤무너비 상 4·하 9
- 허리말기 6×56.5, 끈 4.3×71
- 대님 2.5×37.5(17.5+19.5)

◆ 형태 및 구성법

- 용변을 완전하게 가리기 전 어린아이용 뒤트임 바지. 3~4세까지의 남아와 여아 모두 착용하였으며¹⁵⁾ ‘풍채바지’, ‘봉디’라고도 하였으나 현재는 ‘풍차바지’로 불

14) 국립고궁박물관(2010), 『영친왕 일가 복식』, 130~131쪽.

15) 孫貞圭(1948), 『朝鮮裁縫』, 三中堂, 86쪽.

림.

- 겹감은 소색 생고사, 안감은 소색 명주, 대넘은 남색 생고사, 허리감은 모시를 사용하였음. 큰사폭과 작은 사폭, 마루폭과 뒤밑(뒷무), 허리말기와 끈, 대넘으로 구성됨.
- 앞은 남자사폭바지처럼 큰사폭과 작은사폭을 달았고 마루폭과 뒷무를 연결해서 마름질한 뒷폭을 달았음 허리말기를 단 형태임. 앞은 좌우 각각 2개씩 주름을 잡고 뒤는 좌우 각각 4개씩의 주름을 잡음.
- 허리끈은 바느질 없이 풀칠로 붙임. 끈 길이쪽 시접은 상향으로 처리함.
- 앞쪽 허리 중심 부위에 홍색 박쥐매듭 단추 3개를 중앙에 1개, 좌우 주름 접힌 부위에 1개씩을 3.2cm 정도 간격으로, 총 3개를 달았음. 장식효과와 함께 주름 고정효과, 트임방지 효과라는 실용적 효과, 그리고 박쥐라는 명칭에서 연상되는 ‘복’의 길상적 의미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됨.



【그림 56】 겹감 생고사
(사방 10cm)



【그림 57】 손바느질
(허리말기 부분)



【그림 58】 앞중심의
박쥐단추 장식 3개



【그림 59】 박쥐단추
크기(0.5×0.7cm)



【그림 60】 박쥐단추
고정바느질



【그림 61】 남색
생고사 대넘

◆ 기타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이구 왕자의 풍차바지
 - 돌북 기록인 《의대발기》에는 ‘백숙수봉디’로 기록되어 있고
 - 해당 유물은 원형수자문과 호로문 등이 있는 ‘숙고사’임.
 - 숙수와 숙고사가 같은 직물로 추정됨.

- 바지부리 배래선 쪽에 남색 숙고사 대님이 달려 있음.
- 앞 쪽 허리선 중앙에 고정시켜 놓은 3개의 박쥐단추가 달려 있음.¹⁶⁾
- 숙명여자대학교 소장 풍차바지와 형태와 장식 유사함. 소재는 숙고사와 생고사의 차이 있음.
- 일본 문화학원에서 기증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덕혜옹주 유품 중에도 동일한 형태의 바지¹⁷⁾가 있음. 남녀 아동 풍차바지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여아의 풍차바지에도 남색 대님을 달았음.



【그림 62】 왕자 이구 풍차바지
(국립고궁박물관 2010: 138)



【그림 63】 덕혜옹주 관련
풍차바지(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73)

7. 풍차바지 2 (분홍 풍차바지)



◆ 구성 : 솜(손바느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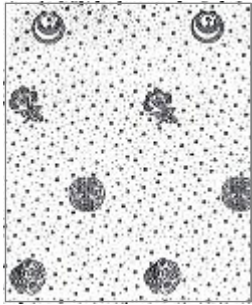
◆ 소재

16) 국립고궁박물관(2010), 앞의 책, 138~139쪽.

17) 국립문화재연구소(2010), 『일본 문화학원 복식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73쪽.



【그림 66】 겹감 문양 세부(단학문 · 화문 · 원형수복문 · 화람문)



【그림 67】 겹감문양



【그림 68】 대화단 대님 문양

- 겹감 : 분홍 화문단(소화문단: 선학문 · 화문 · 원형수복문 · 화람문)
- 안감 : 소색 무명(고밀도)
- 대님 : 남색 대화단
- 허리말기 : 소색 무명(저밀도)
- 박쥐장식 : 진분홍색 견직물

◆ 치수(단위 : cm)

- 마루폭길이 60.6, 밑길이 41.5, 바지통 31, 바지부리 17
- 밑트임 14, 배래막힘 12
- 뒤무(뒤밑) 길이 41, 뒤무너비 상 4 · 하 8
- 허리말기 7×56, 끈 4.5×74.3
- 대님 3×55(31+24)

◆ 형태 및 구성법



【그림 69】 앞길의 박쥐단추 장식(크기 : 0.4×0.7cm)

- 숨을 얇게 둔 겨울용 어린이 풍차바지. 큰사폭과 작은 사폭, 마루폭과 뒤밑(뒷무), 허리말기와 끈, 대님으로 구성됨.
- 겹감 : 분홍색 경수자직 바탕에 위수자직과 능직 등으로 5종류 무늬 직조. 직경 0.5, 2.5~3cm 정도의 둥근 무늬 직조.
 - (1) 소원문(小圓紋, 직경 0.5) (2) 날개를 둥글게 감은 단학문(團鶴紋)
 - (3) 소화문(小花紋) (4) 수·복 글자를 넣은 단수복문(團壽福紋)
 - (5) 바구니에 연꽃이 담긴 화람문(花籃紋)
- 안감은 허리말기보다 약간 성근 소색 무명 사용.
- 허리말기 : 고운 소색 무명 사용.
- 앞에 좌우 각각 2개씩의 주름, 뒤에 좌우 각각 3개씩의 주름 잡음.
- 바지부리 배래 쪽에 남색 대화문단 대님 달았음.

◆ 기타

- 17세기에도 분홍색과 유사한 보라색 여아 바지 기록 확인됨.¹⁸⁾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덕혜옹주 유품 중 분홍색 풍차바지가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분홍 풍차바지와 소재가 같고 바느질 방법이나 바지의 크기, 박쥐 단추 장식, 대님 등도 거의 같음.

18) 이은주(2001), 「17세기 전기 현풍 광씨 집안의 의생활에 대한 소고」 『服飾』 51(8), , 37쪽.



【그림 70】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덕혜옹주 유품 중 분홍 풍차바지(앞·뒤)
→(정정) 일본 문화학원 복식박물관 소장 덕혜옹주 풍차바지(2012년 고궁박물관 특별전)



【그림 71】 풍차바지 앞 박쥐단추 장식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유물과 바느질 맘의 위치는 다름)

8. 조끼



【그림 72】 조끼와 이화문 은파란단추

◆ 구성 : 겹(재봉틀 바느질)

◆ 소재

- 겉감 : 진분홍 숙고사
- 안감 : 노란색 숙고사
- 단추 : 은파란(이화문)

◆ 치수(단위 : cm)

- 길이 32.7, 어깨너비 4.5, 어깨내림 1, 목깊이 11.5
- 앞중심길이 21, 단추간격 7~7.5, 단추 직경 1, 단추구멍 1.6
- 옆선길이 15.9, 진동 16, 진동파임 2.8
- 앞여밈너비 1, 앞길밑너비 18
- 주머니(상) 7.6×1.3, 주머니(하) 8.6×1.5, 주머니 경사 1
- 뒤폭 32.5, 고대 11.6, 뒤길 밑너비 34



그림 73] 재봉틀 바느질



【그림 74】 조끼 단추



【그림 75】 상침스티치(안)



【그림 76】 좌우 주머니와 중간 징금실

◆ 형태 및 구성법

- 겉감은 원형수자문과 호로문의 진분홍 숙고사, 안감은 겉감과 같은 문양의 노랑색 숙고사로 재봉틀 바느질 제작.
- 여밈은 우임, 오얏꽃 무늬 은파란 단추 3개를 달았음. 단추구멍은 버튼홀 스티치로 마감함.
- 주머니(벨트포켓) 4개 : 좌우 길에 각각 작은 주머니와 큰주머니 1개씩.
- 새 옷으로 주머니 사이에 길게 징금한 실이 있음.

- 조끼 가장자리 0.5cm에 재봉틀 바느질로 상침.

◆ 기타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생고사 조끼와 유사(주머니 개수(4개), 단추·버튼홀 동일)



【그림 77】 조끼와 은파란단추·버튼홀

- 조끼는 1880년대 남자 양복이 들어오면서 전통복식에 흡수된 양식. 점차 조끼가 배자를 대신함.
- 전통복식에 없던 주머니가 옷에 처음 달리게 됨.
- 노년층보다 젊은층에서 널리 착용되면서 정착되었음.
- 1883년 7월 보빙사(報聘使)로 미국에 간 일행 사진 속에 민영익(閔泳翊, 1860~1914)이 조끼를 입고 있는 모습이 확인됨.



【그림 78】 조끼 세부



【그림 79】 조끼를 착용한 민영익(1883)

9. 버전



【그림 80】 솜버선



【그림 81】 상모와 사뜨기 장식

◆ 구성 : 솜(손바느질)

◆ 소재

- 겉감 : 소색 무명
- 안감 : 소색 무명
- 사뜨기 · 상모 : 홍색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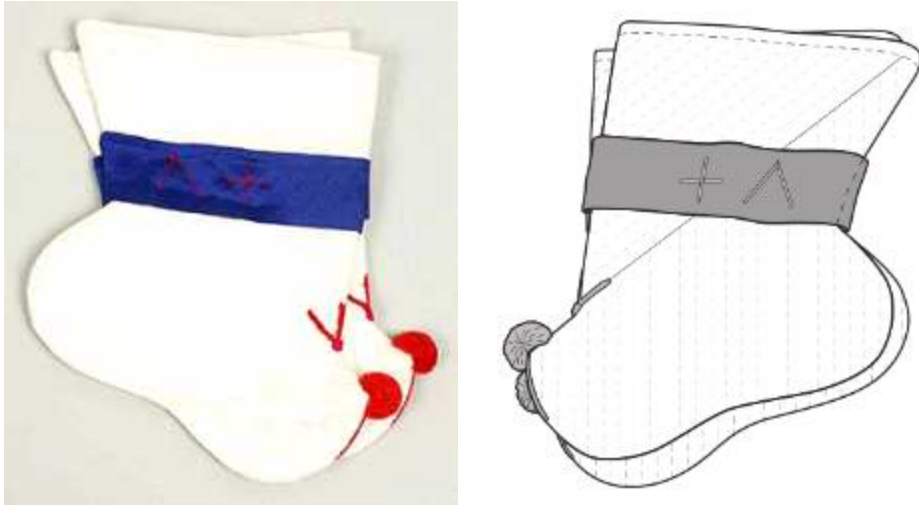
◆ 치수(단위 : cm)

- 버선길이 23.3, 발길이 17, 목너비 12.8, 뒤목길이 11
- 회목너비 17.3, 볼너비 7, 수늑길이 21.2

◆ 형태 및 구성법

- 4~5세용 소색 무명 솜버선.
- 버선코에 홍색 굵은 실을 사용하여 사뜨기를 하고 동일 실로 만든 술이 달려 있음. 버선코를 중심으로 발등 2.5cm, 바닥 3.2cm 길이로 사뜨기를 하였고 발등 사뜨기 끝에 박쥐단추를 장식함.
- 버선코 장식 등의 특징을 확인 할 수 있음.
- 1쌍의 버선을 버선목 중간에 홍색 실로 고정시켜서 창구멍 위치와 크기는 확인할 수 없었음.

10. 타래버선



【그림 82】 타래버선

◆ 구성 : 솜누비(손누비 · 재봉틀 바느질)

◆ 소재

- 겉감 : 소색 무명
- 안감 : 소색 무명
- 대님 : 남색 명주
- 상모 · 사뜨기 : 홍색 실

◆ 치수(단위 : cm)

- 버선길이 18.5, 발길이 14.5, 목너비 12.5, 뒤목길이 5.5, 수늑길이 13cm
- 남색 대님 2×25cm
- 누비간격 0.6~0.7cm

◆ 형태 및 구성법

- 0.6~0.7cm 간격으로 손으로 누빈 백색 면포 솜누비 버선.
- 끝은 올 바닥과 버선목 부분을 사전 누비조각으로 이어 완성함.
- 바닥과 버선목 연결 부위에서 재봉틀 바느질 확인됨.
- 「궁중발기」에는 ‘오목이’로 기록되어 있으며 흔히 ‘타래버선’이라고 함.
- 버선코 중심으로 발등과 바닥, 상하 이음선 부분에 홍색 실로 사뜨기를 하고 박 쥐단추 장식을 하였음. 발바닥은 감침질로 마무리함.
- 버선코에는 홍색 실로 만든 상모가 달려 있음.
- 버선목에 너비 2cm, 길이 25cm의 남색 명주 대님을 달았음.
- 대님을 버선에 돌려 감은 후 홍색 실로 ‘八’, ‘十’자를 수놓아 고정함.
- ‘八’, ‘十’자를 수놓은 것은 80살까지 장수하라는 의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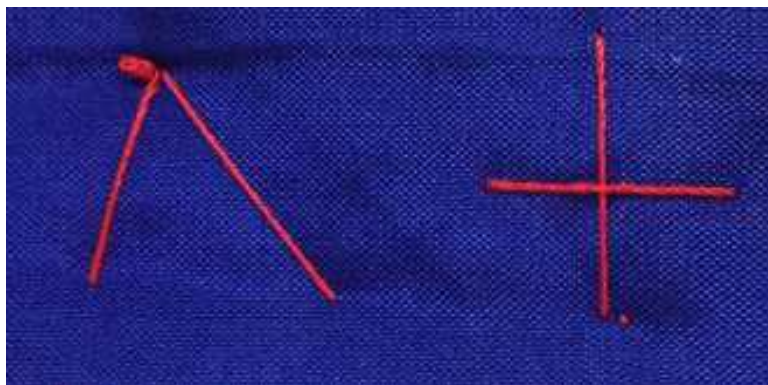
【그림 83】 손누비



【그림 84】 재봉틀 바느질 박음질



【그림 85】 버선코 중신의 사뜨기와 박쥐장식, 상모



【그림 86】 남색 명주 대님에 홍사로 ‘八十’ 고정시침

◆ 기타

- 왕실의 유사한 버전 유물로는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이구의 돌복 중 ‘오목이’가 1 켤레 전해지고 있음.¹⁹⁾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덕혜옹주 유품 중 타래버선 두 켤레 있음.²⁰⁾

19) 국립고궁박물관(2010), 『영친왕 일가 복식』, 88쪽.



【그림 87】 타래버선(덕혜옹주 유품)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79~80)

20) 국립문화재연구소(2010), 『일본 문화학원 복식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79~80쪽.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1.03.26.(금)	대상문화재	(가칭) 사규삼 및 창의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한국복식사
	소 속	○○○	직위(직책)	○○○
주요 지정 사항	문화재 종류	국가민속문화재		
	문화재 명칭	왕가 어린이 옷 일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해당없음		
	연혁·유래 및 특징	* 세부 내용 <붙임 1>에 기재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세부 내용 <붙임 2>에 기재		
검토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해당없음		
		<보호물> 해당없음		
		<보호구역> 해당없음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해당없음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해당없음		
종합의견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사규삼 및 창의’와 ‘왕자 복식 일습’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국가민속문화재 제265호 ‘영친왕 일가 복식 및 장신구류’ 가운데 ‘왕세자 복식’과 형태와 크기, 직물 등이 유사하다. 영왕이 착용했다고 전해오나, 직물 등을 고려할 때는 1930년대 경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나 정확한 것을 알 수 없다.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사규삼 및 창의’와 ‘왕자 복식 일습’은 동일한 가문의 복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2건을 함께 ‘왕가 어린이 옷 일괄’로 지정하기를 권한다.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5월 5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연혁 · 유래 및 특징

- 지정현황 : 현재 미지정
- 명 칭 : (가 칭) 사규삼 및 창의
(명칭안) 왕가 어린이 옷 일괄
- 소유자 : 숙명여자대학교
-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 수 량 : 10건 12점(사규삼, 창의, 두루마기, 저고리, 색동마고자, 풍차바지, 풍차바지, 조끼, 버선, 타래버선)
- 규격·재질 및 형식 등 : ○○○ 조사위원 작성 종합보고서 별첨 문서 참고
- 조성연대 : 20세기 전기

○ 현 상

양호

○ 내용 및 특징

영친왕(1897-1970)이 일본에 갈 때(1907년 12월) 순헌황귀비(1854-1911)가 전달하였다고 전해오는 사규삼과 창의이다. 이 옷은 영친왕비인 이방자여사(1901-1989)가 1960년대 (전) 숙명여대 교수 김명자의 모친에게 준 것을 김명자 교수가 1998년 숙명여대 박물관에 기증하였다.

그러나, 현재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인 이구왕자(1931-2005)의 사규삼과 창의를의 크기와 형태, 옷감 등이 매우 유사하여 숙명여대 박물관 소장 사규삼이 영친왕의 것이 맞다 하면 약 30~40년의 시기 차이가 난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규삼과 창의를는 1930년대 이후의 것으로 생각되며, ‘사규삼과 창의를’와 또 다른 숙명여대 박물관 소장 ‘왕자 복식 일습(두루마기, 저고리, 색동마고자, 풍차바지, 풍차바지, 조끼, 버선, 타래버선)’도 묶어 ‘왕가 어린이 옷 일괄’로 지정할 것을 권한다.

○ 문헌자료

- 국립고궁박물관(2010). 『영친왕 일가 복식』
- 국립문화재연구소(2006), 『우리나라 전통 무늬 1 직물』, 놀와.
- 국립문화재연구소(2010), 『일본 문화학원 복식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1998), 『숙명사랑기증전 1994~1998』
- 원광디지털대학교·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2015), 『소근소근 나누는 청파동 이야기』
- 진덕순·이은주(2016), 「1932년 왕손 이구(李久)의 『의대목록』 복식에 관한 연구」, 『古文書研究』 49.

[붙임 2]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국가민속문화재 제265호(333점)는 영친왕비가 일본 거주 당시 소장하다가 관리의 어려움으로, 1957년부터 동경국립박물관에서 보관하였다가 1991년 한일정상회담의 합의로 환수되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왕세자복식류’ 26건 30점이 있다.
- 현재 조사 중인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왕가 어린이 옷 일괄’은 국가민속문화재 제265호 가운데 ‘왕세자복식류’ 26건 30점과 크기와 형태 직물 등이 매우 유사하다.
- 또한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왕가 어린이 옷 일괄’은 영친왕의 옷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국가민속문화재 제265호와 비교하면 영친왕의 옷보다는 왕세자 이구(李久)의 옷일 가능성이 있다.
- 이 복식은 20세기 전기의 왕실복식, 특히 어린이 복식을 알 수 있다. 바느질법과 직물 그리고 장식기법 등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1.03.26.(금)	대상문화재	(가칭) 사규삼 및 창의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한국복식사
	소 속	○○○	직위(직책)	○○○
주요 지정 사항	문화재 종류	국가민속문화재		
	문화재 명칭	사규삼 및 창의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해당없음		
	연혁·유래 및 특징	* 세부 내용 <붙임 1>에 기재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	* 세부 내용 <붙임 2>에 기재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해당없음		
		<보호물> 해당없음		
		<보호구역> 해당없음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해당없음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해당없음		
종합의견		이 복식 유물들은 기증자에 의하면 영친왕의 옷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고궁박물관 소장 이구의 유물이나 덕혜옹주의 유물과 비교해도 유사한 점이 많아 왕실의 어린이 옷일 가능성은 높지만, 치수 등으로 보아 착용시기 등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다. 해당 유물들 중 사규삼은 왕실과 반가에서 돌옷과 관례시 초출복 등 예복으로 착용되었던 복식으로 남아있는 유물이 매우 드물다. 사규삼과 창의를 함께 징겨 착용하도록 만든 것이며, 저고리와 두루마기의 돌띠 방식의 고름은 어린이를 위한 배려, 색동 마고자, 풍차바지, 타래버선 등에서 조선시대 왕실과 반가에서 사용된 어린이 복식의 특징이 잘 나타난다. 의복의 소재와 직물과 부금의 문양도 19세기말~ 20세기 전반부에 유행하였던 것이다. 대부분의 옷이 손바느질이지만, 사규삼의 일부와 조끼에 재봉틀을 사용하고 있어, 봉제방법의 시대의 변화와 서구문화의 영향을 알수 있다. 따라서 이 유물들은 20세기 초 왕실 어린이 복식 연구는 물론 직물과 금박문양, 바느질 방법의 변화, 배색 등에 대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유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4 월 29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연혁 · 유래 및 특징

- 지정현황 : 현재 미지정
- 명 칭 : (가 칭) 왕가 어린이 옷 일괄
(명칭안)
- 소유자 : 숙명여자대학교
-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 수 량 : 10건 12점
- 규격·재질 및 형식 등 :
 1. 사규삼 : 분홍 숙고사, 흑색 숙고사 / 길이 71, 화장 53, 품 32cm
 2. 창 의 : 녹색 문항라 / 길이 68, 화장 53, 품 33cm
 3. 두루마기 : 분홍 생고사, 진분홍 생명주, 남색 생고사 / 길이 66, 화장 38.8, 품 38cm
 4. 저고리 : 진분홍 생고사, 소색 노방, 남색 생고사 / 뒷길이 32, 화장 36, 품 32cm
 5. 색동마고자 : 연두색, 자적색, 남색, 분홍색, 노란색, 분홍색, 연분홍색의 숙고사와 녹색 문항라, 진분홍 명주 / 길이 32, 화장, 품 33 cm
 6. 풍차바지 : 소색 생고사, 소색 명주, 소색 모시, 남색 숙고사 / 마루폭길이 61, 밑길이 41.5, 바지통 34.5, 바지부리 14, 허리 6×56.5, 끈 4.3×7cm
 7. 풍차바지 : 분홍 화문단, 소색 고운 무명, 남색 대화단, / 마루폭길이 60.6, 밑길이 41.5, 바지통 31, 바지부리 17, 허리말기 7×56, 끈 4.5×74.3 cm
 8. 조끼 : 진분홍 숙고사, 노란색 숙고사, 은과란 단추 / 길이 32.7, 어깨너비 4.5, 품 32.5 cm
 9. 버선 : 소색무명, 홍색실 / 버선길이 23.3, 발길이 17cm
 10. 타래버선 : 소색무명, 남색 명주. 홍색실 / 버선길이 18.5, 발길이 14.5, 대님 2×25, 누비간격 0.6~0.7 cm

○ 현 상 :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

○ 내용 및 특징

해당유물은 영친왕비 이방자여사(1901~1970)가 보관하던 것을 숙명여자대학교 화학과 김명자(전 환경부 장관)교수의 모친이 인수해 1960년대 이후 소장하여 오다, 1998년에 김명자교수가 숙명여대 박물관에 기증하였다고 한다. 기증 당시 영친왕(이은, 1897~1970)이 1907년 일본에 갈 때 가져간 것으로 10세전후의 어린 시절 입었던 옷이었다고 전해진다.

1. 사규삼 : 소재는 원형안에 수(壽)자 문양이 배치된 수원문과 호로문이 시문된 분홍색 숙고사 홑겹이다. 깃 도련 수구 등에 검은 선을 두르고 그 위에 길상

문을 부금하였다. 부금의 보존 상태는 좋은 편이 아니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이구(李玖, 1931~2008)의 돌복이었던 사규삼(1932년)과 비교해 보면, 부금 문양은 아름다우나 문양의 가장자리 선의 상태는 다소 번진 듯 보인다. 사규삼에는 두 개의 이화문양의 단추를 달려 있었으나, 아래에 달린 암단추 하나는 소실된 상태이다. 손바느질과 재봉틀을 사용한 기계침이 혼용되어 있다.

2. 창 의 : 소재는 반장문과 마름모꼴의 문양이 시문된 녹색의 7족 문항라 홀겹이며, 손바느질로 제작하였다. 깃과 고름에 부금이 되어 있다. 사규삼의 받침옷으로 입었던 것으로 사규삼과 함께 징거두어 두 벌을 한 번에 입을 수 있게 만든 것이다.
3. 두루마기 : 소재는 분홍 생고사 겹감에 진분홍 생명주로 안을 대고 남색의 고름을 단 춘추용 겹두루마기이다. 수원문과 호로문이 시문된 생고사를 사용하였다. 고름으로 가슴둘레를 한바퀴 둘러 묶을 수 있는 돌띠라고 하는 긴 고름을 달아 어린이 옷의 특징을 보여준다. 손바느질로 만들었다.
4. 저고리 : 진분홍 생고사 겹감에 소색 노방으로 안을 대었고 남색 생고사 고름은 돌띠 형식으로 만들어 달았다. 수원문과 호로문이 시문된 생고사를 사용하였다. 손바느질로 만들었다.
5. 색동마고자 : 길은 연두색 숙고사이고, 소매는 숙고사 문항라 등의 소재로 아홉가지 색을 조합하여 1.5cm폭의 22줄 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왼쪽 길에 암단추가 달려 있으나 숫단추를 단 흔적은 없다. 수구와 도련을 따라 부금이 되어 있다. 손바느질로 만들었다.
6. 풍차바지 : 소색이며 겹감은 숙고사, 안감은 명주를 사용하였고, 남색 대넒이 바지 부리에 부착되어 있다. 용변을 가리지 전 어린이의 바지로 뒤가 트여 있으며, 빨간색으로 박쥐 장식을 달았다. 손바느질로 만들었다.
7. 풍차바지 : 분홍 화문단으로 만든 솜바지이며, 뒤가 트여 용변을 보기 편하게 만든 어린이용 바지이다. 남색 대넒과 박쥐장식이 달려 있다. 손바느질로 만들었다.
8. 조끼 : 진분홍 숙고사에 노란색 숙고사를 안을 댄 조끼이다. 은단추가 달려 있는데 파란을 올린 이화문 단추이다. 다른 대부분의 옷과 달리 재봉틀로 바느질한 것이 특징이다. 조끼는 개항 이후 서구복의 영향으로 급속히 한복에 도입되

어 유행하게 된 복식이다.

9. 버선 : 소색 무명으로 만든 솜버선이다. 어린이용으로, 홍색 박쥐장식과 사뜨기로 버선코 주위를 장식하고 홍색 술을 달았다. 손바느질로 만들었다.

10. 타래버선 : 소색 무명으로 만든 누비버선이며, 어린이용 누비버선은 타래 버선 혹은 오목이 버선이라고 한다. 홍색 박쥐장식과 사뜨기, 술 장식 등을 달았고 남색 대님도 달려 있다. 손바느질로 만들었다.

○ 문헌자료(없을 경우 생략)

- 국립고궁박물관, 2010, 『영친왕 일가 복식』.
-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1998, 『숙명사랑기증전 1994~1998』.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우리나라 전통 무늬1 직물』, 놀와.
- 金英淑·朴允美, 2007, 『朝鮮朝 王室服飾』.

[붙임 2]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이 유물들은 한일강점기 조선왕실의 의생활, 그 중에서도 특히 남자 어린이의 복식에 대해 알려주는 자료이며,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 왕실과 반가의 어린이 복식 특히 예복에 대해 알려주는 자료이다. 사규삼은 조선시대 양반가와 왕실에서 미혼자의 예복으로 관례의 초출복이나 돌옷 등으로 착용한 옷이다. 고려대학교 박물관에는 관례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규삼이 있으나, 어린이용 사규삼 유물은 매우 귀하다. 숙명여대 박물관 소장 왕가 어린이 복식들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이구의 유물과 더불어 왕실에서 착용된 어린이의 복식에 대해 알려주는 유물로 매우 가치가 있다.
- 이 복식유물들은 덕혜옹주의 어린 시절 복식이나 영친왕의 아들인 이구의 유물과 비교해 보아도 직물과 문양 등 많은 부분에서 유사성이 발견되며, 왕실에서 사용된 이화문양의 파란은 단추가 사용되는 등 민간복식에서 보기 힘든 장식이 포함되어 있다.
- 조선시대 어린이 옷에서 사용되는 돌띠나 색동 소매, 붉은 색 사뜨기와 장식술 등이 이

유물들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 이 유물들은 시대의 변화를 알려주는 자료이다. 바지, 저고리, 마고자, 두루마기, 버선등 기본 복식 외에 서구의 문화를 접한 이후 우리나라 복식에 도입되게 된 조끼가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의 옷이 손바느질로 만들었음에도 일부에서는 재봉틀을 사용하는 등 당시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 유물에 사용된 직물의 종류와 금박의 무늬 등이 19세기말~20세기초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한국 복식의 연구자료로서 가치가 충분히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1.03.26.(금)	대상문화재	(가칭) 왕자복식 일습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한국복식
	소 속	○○○	직위(직책)	○○○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민속문화재		
	문화재 명칭	왕가 어린이옷 일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해당없음		
	연혁·유래 및 특징	* 세부 내용 <붙임 1>에 기재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	* 세부 내용 <붙임 2>에 기재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해당없음 <보호물> 해당없음 <보호구역> 해당없음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해당없음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해당없음		
종합의견		숙대박물관 소장 <왕가 어린이옷 일괄> 중 사규삼 및 창의를 착장자와 전래 경로가 전해지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가 없어 현재로서는 이를 영친왕의 것으로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그러나 그 이외 함께 기증된 왕가 어린이옷 8건 10건과는 형태, 직물, 구성면에서 품격에 차이를 보이는 바 특별히 구분해 기증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임. 사규삼 및 창의를 이외 일괄 기증된 8건 10점의 옷은 직물, 형태, 구성 면에서 이구 왕자의 것으로 전해진 것과 대동소이 한 점으로 보아 이들 옷 역시 왕가의 어린이 옷으로 판단됨. 왕가의 어린이 복식은 구 왕자의 옷 이외 전해지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희소성이 높으며, 왕실의 품격이 남아 있는 어린이 복식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예상되는 바 그 가치가 인정됨.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05 월 03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연혁 · 유래 및 특징

- 지정현황 : 현재 미지정
- 명 칭 : (가 칭) 왕자복식 일습
(명칭안) 왕가 어린이옷 일괄
- 소 유 자 :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 수 량 : 10건 12점
- 규격·재질 및 형식 등 : 내용 및 특징 참조
- 조성연대 : 20세기 전기

○ 현 상 : 상태 양호

○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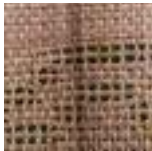
- <왕가 어린이옷 일괄>은 총 10건 12점(사규삼 1건 1점, 창의 1건 1점, 두루마기 1건 1점, 저고리 1건 1점, 색동마고자 1건 1점, 풍차바지 1건 1점, 풍차바지 1건 1점, 조끼 1건 1점, 버선 1건 2점, 타래버선 1건 2점)임.
- 소장 박물관 측은 기증 당시 내용에 대하여“영친왕비인 이방자여사가 1960년대 숙명여대 김명자 교수의 모친에게 이 옷들을 전달했고, 이어 김명자 교수가 1998년에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에 기증한 것”이라 함.
- 특히 사규삼과 창의는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에 김명자 교수가 기증 할 때 “영친왕(1897~1970)이 일본에 갈 때(1907년 12월, 당시 11살) 때 순헌황귀비(1854~1911)가 전달한 것”을 강조하였다고 함. 그러나 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는 상태로 이를 영친왕의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현재까지는 무리가 있음. 또한 11살 때 착용의 목적으로 전달했다고 하나 사규삼은 규모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이구의 둘윳과 큰 차이가 없어 11살이 입을 수 있는 크기는 아니라고 판단됨.
- 그러나 사규삼과 창의는 최고의 수준의 왕실 어린이옷으로 20세기 전기 왕실 어린이옷의 형태, 색상, 직물, 무늬 특징을 확인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판단되어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함.
- 사규삼과 창의 이외의 어린이옷 8건 10점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기록이 없으나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이구왕자의 복식과 유사점이 많아 왕가 어린이옷으로 판단되는바

희소성과 자료적 가치가 인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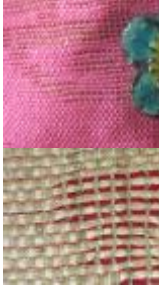
<왕가 어린이옷 일괄> 10건 12점의 목록과 특징은 다음과 같음.

왕가 어린이옷 일괄

- 수량 : 10건 12점
- 연대 : 20세기 전기
- 상태 : 양호
- 직물
 - 견직물(숙고사, 향라, 화문단, 모본단, 양단 등)
 - 면직물(무명)

명칭 및 사진	직 물	치 수(cm)	내 용
1. 사규삼 	직물: 숙고사  구성: 홑 장식: 부금(금박)	길이 71 화장 53 품 32 고대 12 수구 28.5	네모난 깃에 여임이 중심에서 만나는 대금형으로 가장자리에 검은 선이 둘러져 있는 것이 특징임. 분홍색 사규삼 아래 녹색창의를 받침옷으로 하여 두 개의 옷을 한꺼번에 입을 수 있도록 어깨와 수구가 징거져 있음. 사규삼의 직물은 20세기 전후에서 1940년대까지 꾸준히 유행하던 원형壽자문와 호로(표주박)무늬가 시문된 숙고사를 사용하였음. 가장자리 검은 선에는 화려한 부금장식이 있는데, 앞뒤 소매 끝에는 수부귀 다남자(壽富貴 多男子), "부여해 수여산(富如海 壽如山)", 쇄에는 "장의자손 수여금옥(長宜子孫 壽如金石)", 앞길에는 "자구다복 영언배명(自求多福 永言配命)"을 부금하였고, 글자 사이에는 원형의 수자무늬와 박쥐무늬를 부금 하였음. 단추는 꽃모양 밀화단추를 달았으나 한 개는 유실된 상태임.
2. 창의 	7족 향라   장식 : 부금	길이 68 화장 53 품 33 고대 13 수구 32.5	초록 창의는 뒤 중심 아래가 트여있는 일명 '대창의'로 깃에 '길상여의(吉祥如意), 안락장춘(安樂長春)'이라고 금박되어 있음. 녹색 창의는 7족 향라로 독특한 반장사협문(盤長四狹紋)이 시문되어 있음. 이는 19세기 동아대학교박물관 소장 미인도에 나타난 저고리 무늬와 동일하여 당시의 유행하는 직물이 사용되었음이 알 수 있다. 이 유물은 19세기 말경 왕실 어린이옷의 형태, 색상, 직물, 무늬 특징을 확인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있음.
명칭 및 사진	직 물	치 수(cm)	내 용

3. 두루마기 	겉: 생고사 안: 노방 고름: 생고사	길이 66 화장 38.8 품 38 고대 12.5 수구 12.8	두루마기는 옆과 뒤트임 없이 “두루 막혀 있다.” 라 하여 명명된 것임. 원형수壽자와 표주박무늬가 있는 분홍색 생고사로 겉을 하고, 안은 진분홍 생명주로 만든 춘추용 겹두루마기임. 고름은 겉고름 4.5×74, 안고름 4.5×41.5을 남색으로 길게 달아 허리에 두르고 앞으로 매도록 하였음.
4. 저고리 	겉: 생고사 안: 노방 고름: 생고사 	길이 32 화장 36.8 품 32 고대 11 수구 12	원형수자무늬와 호로(표주박)무늬가 시문된 짙은 분홍색의 생고사가 사용되었고, 안감은 평직의 소색 노방이 사용되었음. 고름은 청색 생고사로 겉고름 4.5×73, 안고름 4.5×41임. 동정은 흰색 순인(바탕에 귀갑무늬가 있는 성근직물)이 사용되었음. 손바느질로 제작됨.
5. 색동마고자 	겉: 숙고사 안: 명주 색동: 견직물(숙고사 및 문향라 등)   장식 : 부금	길이 32 화장 42 품 33 고대 10.8 수구 12.5	저고리 위에 덧입는 옷으로 깃이 따로 없으며, 여밈이 중심에서 만나는 대금형임. 깃 둘레 좌, 우에 꽃문양 3개씩을 부금하고, 뒷고대에는 등솔 중심 상단에 원형의 희희자무늬를 중심으로 꽃문양을 좌우에 부금 하였음. 겉은 남송색 숙고사이고, 안감은 진분홍 명주로 양쪽 옆선아래를 도련에서부터 겨드랑이 쪽으로 5.7cm 정도 트임이 있음. 소매는 색동으로 색동 중에는 사규삼 안 창의에 사용된 초록색 향라가 포함되어 유물의 연관성이 짐작됨. 끝동에는 꽃 모양을 부금으로 장식하였음.
6. 풍차바지 	겉: 생고사 안: 노방 대님: 생고사 끈: 명주	마루폭길이 61 허리 6×56.5 허리끈 4.3×71 부리 14 대님 2.5×37.5	어린이용으로 용변에 용이하도록 뒤가 트인 바지임. 겉감과 대님은 청색 생고사, 허리감은 명주, 안감은 노방으로 사용하였음. ‘풍채바지’, ‘봉디’라 칭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풍차바지’로 불림. 앞쪽 허리에 홍색 박쥐모양 장식단추 3개를 장식으로 달았음.
7. 풍차바지 	겉: 화문단(양단) 대님: 화문단(모본단) 안감, 끈, 허리: 면	마루폭길이 60.6 허리 7×56 허리끈 4.5×74.3 대님 3×55	어린이용으로 용변에 용이하도록 뒤가 트인 바지임. 겉감은 원형의 작은 꽃, 원형학무늬, 원형수복壽福자무늬, 원형호로무늬 등이 있는 분홍색 양단, 안감과 허리단은 흰색 무명을 사용한 솜 풍차바지임.
명칭 및 사진	직 물	치 수(cm)	내 용

8. 조끼 	겉/안: 숙고사 	길이 32.7 품 32.5 고대 11.6 어깨너비 4.5 진동 16 옆선길이 15.9	겉감은 원형 수자호로무늬가 있는 진분홍 숙고사 안감은 옅은 녹색으로 겉감과 같은 감이 사용됨. 여밈은 3단의 꽃모양 파란 (범람)단추를 달았음. 재봉틀 바느질로 제작되었으며, 단추 구멍은 버튼 홀 스티치로 손바느질 되어 있음. 새 옷으로 위아래 주머니 사이에 길게 징금한 실이 좌우에 있음.
9. 버선 	겉안: 면 	길이 23.3 발길이 17 목너비 12.8	백색 면포로 만든 아이용 솜버선으로 버선코에는 홍색의 명주실을 사용한 사뜨기와 술이 달려 있으며 상단에 박쥐모양 장식단추가 달려있음.
10. 타래버선 	겉안: 면 대님: 명주 	길이 18.5 발길이 14.5 목너비 12.5	백색 면포 누비버선으로 돌 때 주로 신는 타래버선임. 뒤축에는 나비 2cm, 길이 25cm의 남색 끈을 달았음. 버선코에는 홍색 사뜨기와 홍색 술이 달려 있으며, 상단에 박쥐모양장식단추와 사뜨기 장식이 있음. 새 타래버선으로 청색 끈에 80십을 의미하는 홍색실로 八자와 十자로 고정하였음.

[붙임 2]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영친왕비에 의해 전달되었다고 전하는 <왕가 어린이옷 일괄>은 형태와 구성법에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어린이 복식과 유사점이 많아 같은 시기의 왕실 아동복식으로 짐작됨.
- 특히 일괄 유물 중 사규삼과 창의는 현재까지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과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이구(1931~2005) 사규삼(돌복)이 유일하며, 숙명여대박물관 소장은 국립소장 사규삼과 비교하여 형태, 구성, 직물, 장식에 있어 좀 더 품격 있는 옷으로 판단됨.
- 국가민속문화재 제265호 (영친왕 일가 복식 및 장신구류)와 함께 왕실 어린이옷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예상되는 바 그 가치가 인정됨.

9. 민속마을 건축물 정비사업 추진 검토

가. 제안사항

민속마을 건축물 정비사업 추진계획(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의 전통경관 회복 및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한 「민속마을 건축물 정비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추진경과

- '19. 5.~'20. 4. 제주 성읍마을 무단 현상변경 건축물 전수조사
- '20. 8.~10.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 '20. 12. 10. 민속마을 보존 및 발전방향 심포지엄 개최
- '21. 2.~3.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 '21. 5. 17. 제주 성읍마을 주민설명회 개최
- '21. 6. 23. 전통건축·조경분야 문화재위원 보고회 개최

라. 주요내용

(1) 정비개요

- 정비대상 : 민속마을 내 무단 현상변경 건축물(개별 지정문화재 제외)
- 정비유형 : 철거, 증·개축, 양성화(수리)
- 추진절차 : 본 사업의 정비기준 내 자체처리 후 위원회 보고
- 정비기준 : 마을별 건축유형, 취락형태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비기준 마련

(2) 추진방법

- 제주 성읍마을 시범 운영으로 사업 효과·문제점 등 분석·보완하여 나머지 민속마을 확산 추진

<제주 성읍마을 정비기준(요약)>

▶ 건축규모

- * 별동증축 : 주택/근생시설 85㎡ 이하, 부속채 25㎡ 이하, 처마높이 2,600mm 이하
- * 연접증축 : 기존 바닥면적의 1/10 또는 10㎡ 이하, 처마높이 기존 건축물 이하
- * 개 축 : 지정 당시 또는 건축물대장 등재면적 이하, 처마높이 2,600mm 이하

- ▶ 건축평면 등 : '—'자형 평면, 제주석 외벽, 초가이엉 지붕 등 건축물 외관은 전통 민가 양식 유지, 내부의 공간·재료는 자유롭게 변경 가능

(3) 예산지원 : 철거 비용 지원(1㎡당 500천원 이내)

마. 기대효과

- 민속마을의 전통경관 회복 및 사회변화에 따른 거주환경 개선
- 무단 현상변경 건축물의 구조적 취약문제 해소로 주민·관람객 안전 확보
- 주민참여 증진으로 자긍심 고취 및 생활 불편으로 인한 갈등 해소

바. 추진일정

- 제주 성읍마을 정비사업 시범 시행('22년~'26년)
- 타 민속마을 무단 건축물 현황조사 및 정비방안 수립('22년~)
 - * 마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순차 실시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붙임 민속마을 건축물 정비사업 추진계획(안) 1부.

민속마을 건축물 정비사업 추진계획(안)

민속마을 내 만연한 무단 현상변경 건축물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문화재의 전통경관을 회복하고, 주민들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 국가민속문화재 중 특히 마을단위 문화재에서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주거 및 생활 불편 해소 등의 목적으로 창고나 비닐하우스 등과 같은 건축물 무단 설치·증설 다수 발생
- ☐ 무단 현상변경 행위가 시행된 건축물이 과반 이상 분포하고 있어 철거 등 행정·사법적 조치를 강제할 경우 주민들의 집단적 저항 초래 우려
- ☐ 이에 따라, 민속마을 내 무단 현상변 건축물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마을의 전통경관을 회복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19년 국정감사 서면질의(박인숙 의원): 국가민속문화재 중 훼손(무단 현상변경) 지속 발생 문화재에 대한 방안 마련 시급

2 추진방향

- ☐ 「문화재보호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원형유지) 하에서 주민들의 주거 및 생활환경 변화를 발전적으로 포용함
- ☐ 주민의 거주를 전제로 생활 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줄일 수 있도록 정비 함으로써 전통경관의 보존과 생활의 편의가 조화되도록 함
-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문화유산이 불편과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자긍심을 주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함
- ☐ 무단 현상변경 건축물 정비사업 시범운영(제주 성읍마을)으로 타 민속마을 모범사례 전파 및 무단 현상변경 건축물 정비의 효율성을 제고함

3 현 황

□ 민속마을 현황 : 8개소

구분	안동 하회마을	제주 성읍마을	경주 양동마을	고성 왕곡마을	아산 외암마을	성주 한개마을	영주 무섬마을	영덕 괴시마을
연도	'84.01.14.	'84.06.12.	'84.12.24.	'00.01.07.	'00.01.07.	'07.12.31.	'13.08.23.	'21.06.21.
면적	6,484,820㎡	794,213㎡	969,119㎡	180,741㎡	197,292㎡	201,637㎡	669,193㎡	278,951㎡
인구	224명	653명	249명	52명	132명	129명	83명	59명

□ 성읍마을 무단 현상변경 건축물 현황

구분	세부내역
총괄현황	225가옥 873동(전체 306가옥 1,305동) * 전체 가옥의 73.5%, 전체 건물동의 66.9%
유 형	별동증축 531동, 연접증축 218동, 신축 119동, 개축 5동
용 도	주택 355동, 근생시설(소매점, 식당) 242동, 비닐하우스 133동, 창고 100동, 축사 4동, 차고·관리사·작업장 등 39동

4 추진경과

- 2019. 5. ~ 2020. 4. 제주 성읍마을 무단 현상변경 건축물 전수조사
- 2020. 4. ~ 8. 건축물 보존현황 분석 및 정비(안)마련
- 2020. 8. ~ 10.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 2020. 11. 13. 법률자문 실시(정부법무공단 외 2개소)
- 2020. 12. 10. 민속마을 보존 및 발전방향 심포지엄 개최
- 2021. 2. ~ 3.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 2021. 4. 1. 제주 성읍마을 보존회 등 주민대표 간담회 실시
- 2021. 5. 17. 제주 성읍마을 주민설명회 개최
- 2021. 6. 23. 전통건축·조경분야 문화재위원 보고회 개최

5 정비대상 및 유형

□ 정비대상

- 민속마을 내 무단 현상변경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개별 지정문화재 제외). 단, 지적선 침범 및 소유주 상이, 무허가 농지전용 건물 등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선 조치 후 시행

※ 정비대상 건축물 소유자와 지자체에서 건축현황 및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정비유형 선택

□ 정비유형 I : 철거

- 대상: 타 법령 위반 건축물, 자진철거 희망 건축물, 마을경관을 심각히 저해하는 건축물 등
- 방법: 정비대상 건축물 철거 및 지형 원상복구

유형	정비 전	정비 후(예시)
철거		

□ 정비유형 II : 증·개축

○ 연접증축

- 대상: 기존 건축물의 경관과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물 배면 등 활용하여 정비 가능한 건축물
- 방법
 - 무단 증축부분 철거 후 건물 배면·측면으로 연접하여 증축하되, 전통민가의 특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기존 건물과의 관계(배치, 위계 등)에 유의
 - 증축되는 부분의 기단·지붕은 별도로 설치하여 구분 조치

유형	정비 전	정비 후(예시)
연접 증축		

○ 별동증축

- 대상: 연접증축 규모를 초과하거나 기존 가옥의 평면형식상 연접증축이 곤란한 건축물
- 방법
 - 무단 증축부분 철거 후 별동으로 증축하되, 전통민가의 특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기존 건물과의 관계(배치, 위계 등)에 유의
 - 부속용도의 시설은 가급적 하나의 채로 통합
 - 증축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 구분 조치

유형	정비 전	정비 후(예시)
별동 증축		

○ 개축

- 대상: 연접·별동 증축으로 정비가 곤란하고, 건축물의 원형 구분이 어려운 경우로 마을경관 회복 및 주거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 방법
 - 정비대상 건축물 철거 후 전통민가의 평면형식으로 개축
 - 개축면적은 지정 당시 면적 또는 건축물대장 등재 면적 이하

유형	정비 전	정비 후(예시)
개축		

□ 정비유형 III-1: 양성화

- 대상: 건축구조 및 외부 마감재료(벽체, 지붕)가 모두 전통양식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
- 방법: 정비대상 건축물의 규모, 형태 등이 기존 가옥의 배치와 경관을 저해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양성화 추진

유형	예시1	예시2
양성화		

□ 정비유형 III-2: 수리 후 양성화

- 대상: 외부형태 등을 일부 수리함으로써 경관 개선이 가능한 건축물
- 방법: 정비 대상 건축물 철거 없이 전통민가양식에 맞게 수리

유형	정비 전	정비 후(예시)
수리 후 양성화		

6 정비절차

□ 중·개축, 양성화(수리)

- 현상변경 계획서(무단 건축물 정비계획서) 제출 → 관할 지자체 검토/진달 →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심의 → 설계승인 → 정비 실행 → 건축물대장 등재 → 철거비 지원

▶ (자체처리) 본 사업의 정비기준 범위 내 개별정비(현상변경)는 자체처리 후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며, 사안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상정

□ 철거 ※ 현상변경 심의 불요

- 철거 수요조사 → 철거 및 지형 복구 → 철거비 지원

7 정비기준 및 예산지원

□ 정비기준 ※ 마을별 건축유형, 취락형태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비기준 마련

<제주 성읍마을>

○ 건축규모

구 분	바닥면적	처마높이
별동증축	주택(안거리, 밖거리) : 85㎡이하 부속채(모커리) : 25㎡이하 근린생활시설 : 85㎡이하	2,600mm 이하
연접증축	10㎡ 이하 또는 기존 바닥면적의 1/10 이하	기존 건축물 이하
개축	지정 당시 면적 또는 건축물대장 등재면적 이하	2,600mm 이하

- ※ 1. 정의현성내 평균 바닥면적 : 주택 57.66㎡, 부속채 17.79㎡, 근린생활시설 54.49㎡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 상 증축허용면적이 85㎡이하이고, 「주택법」 상 국민주택규모도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임

○ 건축평면 등

- ‘一’자형 평면, 제주석 외벽, 초가이영 지붕 등 건축물 외관은 전통민가 양식 유지, 내부의 공간 및 재료는 자유롭게 변경 가능

□ 예산 지원 : 철거(폐기물 처리 포함) 비용 지원(1㎡당 500천원 이내)

8 기대효과

- ☐ 무단 현상변경 건축물의 정비를 통한 민속마을의 전통경관 회복 및 사회 환경 변화 수용에 따른 거주환경 개선
- ☐ 무허가 건축물의 구조적 취약문제를 해소하고, 화재 등 재난사고를 방지하여 주민 및 관람객 안전 확보
- ☐ 주민참여 증진으로 자긍심 고취 및 생활 불편에 따른 갈등 해소

9 추진일정

- ☐ 제주 성읍마을 정비사업 시범 시행('22년~'26년)
- ☐ 타 민속마을 무단 건축물 현황조사 및 정비방안 수립('22년~)
 - 무단 현상변경행위 파악 및 마을별 특성을 반영한 정비방안 강구
 - 마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순차 실시
- ☐ 민속마을 및 고택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23년~)
 - 민속마을 내 비지정가옥 관리규정 마련, 국가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 기준 개정 등
- ☐ 마을별 정비사업 종료 후 미이행 건축물 철거명령 및 고발조치

보 고 사 항

10. 현상변경 자체처리 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안동권씨 능동재사」 주변 석축 설치 등 현상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자체처리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계		10건	허가 10건												
안동권씨 능동재사	경북 안동시 서후면 (안동시장)	□ 안동권씨 능동재사 주변정비 허가사항 변경 ○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889 일원 ○ 허용기준 : 1구역 ○ 이격거리 : 약 37.2m ○ 신청내용 : 허가사항 변경 <table><tr><td>구 분</td><td>당 초</td><td>변 경</td></tr><tr><td>석 축</td><td>L=93.9m, H=0.3~1.1m</td><td>L=121.7m (증 27.8m), H=0.3~1.0m</td></tr><tr><td>배 수</td><td>자연석 등 L=20m</td><td>변경없음</td></tr><tr><td>포 장</td><td>황토A=63.51㎡</td><td>변경없음</td></tr></table>	구 분	당 초	변 경	석 축	L=93.9m, H=0.3~1.1m	L=121.7m (증 27.8m), H=0.3~1.0m	배 수	자연석 등 L=20m	변경없음	포 장	황토A=63.51㎡	변경없음	○ 허가 - 2021. 4월 현상변경허가를 받았으나, 석축 일부 물량을 조정하여 석축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과 동일할 것으로 판단됨.
구 분	당 초	변 경													
석 축	L=93.9m, H=0.3~1.1m	L=121.7m (증 27.8m), H=0.3~1.0m													
배 수	자연석 등 L=20m	변경없음													
포 장	황토A=63.51㎡	변경없음													
안동 하회마을	경북 안동시 퇴계로 (안동시장)	□ 안동 하회마을 야간보행환경개선 사업 ○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 허용기준 : 지정구역 ○ 신청내용 : 하회마을 제방길 주변 야간보행등 설치 - 보행등 H=600mm, 5m~10m 간격 124개소	○ 허가 - 마을주민 및 관람객의 야간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야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하는 조명등으로 마을주민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논산 명재 고택	충남 논산시 노성면 (논산시장)	□ 논산 명재 고택 주변 임도 개설 ○ 신청위치 : 충남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 산11-1 외 4필지 ○ 허용기준 : 1구역 ○ 이격거리 : 약 137m ○ 신청내용 : 임도 개설 - 개설목적 : 산불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 규모 : L=373m, B=3.5m, 콘크리트 포장 * 최대 성토고 2.3m, 절토고 1.11m ※ 노성 킬리사(시도기념물/이격거리 약 25m) 관련 충청남도 의견(문화유산과-8830, '21.6.22.) · 당해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음	○ 허가 - 산불 및 산림병해충 신속 방제 등을 목적으로 기존 산길을 임도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의 역사문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정읍 김명관 고택	전북 정읍시 산외면 (○○○)	□ 정읍 김명관 고택 주변 축사 적법화 ○ 신청위치 : 전북 정읍시 산외면 오공리 ○○○ ○ 허용기준 : 1구역 ○ 이격거리 : 약 100m ○ 신청내용 : 축사 적법화 - 부지면적 : 3,699㎡ - 건축면적 : 기존 711㎡ + 증축 730.16㎡ = 1,441.16㎡ - 층수/높이 : 1층, 6.3m - 구조 : 파이프·콘테이너구조	○ 허가 - 기존 축사를 무허가 증축한 사항을 가축분뇨법에 따라 적법화 조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예천 물체당 고택	경북 예천군 유천면 (○○○)	□ 예천 물체당 고택 주변 축사 및 퇴비사 신축 ○ 신청위치 : 경북 예천군 유천면 율현리 ○○○ ○ 허용기준 : 3구역 ○ 이격거리 : 약 380m ○ 사업내용 : 축사 및 퇴비사 신축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가동</th><th>나동</th><th>다동</th></tr> </thead> <tbody> <tr> <td>건축면적/연면적(㎡)</td><td>1,400/1,750</td><td>1,400/1,750</td><td>297/297</td></tr> <tr> <td>높이</td><td>6.95m</td><td>6.95m</td><td>6.4m</td></tr> <tr> <td>구조</td><td>강파이프구조</td><td>강파이프구조</td><td>강파이프구조</td></tr> <tr> <td>용도</td><td>축사</td><td>축사</td><td>퇴비사</td></tr> </tbody> </table>	구분	가동	나동	다동	건축면적/연면적(㎡)	1,400/1,750	1,400/1,750	297/297	높이	6.95m	6.95m	6.4m	구조	강파이프구조	강파이프구조	강파이프구조	용도	축사	축사	퇴비사	○ 허가 - 공통사항에 해당하여 허가신청 하였음 - 문화재와 380m 이격되어 있고, 신청부지와 문화재 사이에 철길이 있어 가시되지 않으므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구분	가동	나동	다동																				
건축면적/연면적(㎡)	1,400/1,750	1,400/1,750	297/297																				
높이	6.95m	6.95m	6.4m																				
구조	강파이프구조	강파이프구조	강파이프구조																				
용도	축사	축사	퇴비사																				
화성 정시영 고택	경기 화성시 서신면 (○○○외1)	□ 화성 정시영 고택 주변 단독주택 부지 조성 ○ 신청위치 : 경기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 ○ 허용기준 : 4구역 ○ 이격거리 : 약 430m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에 따른 부지조성 - 신청면적 : 1,720㎡ - L형옹벽 : H=0.2m~2.9m L=226m - 절성토 : -9m ~ -0.7m	○ 허가 - 신청내용은 절토가 다소 발생하나 신청부지와 문화재 사이에 4차선 도로가 있어 구역이 분리된 지역으로, 전혀 보이지 않아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영양 한양조씨 사월종택	경북 영양군 영양읍 (한국LPG배 관망사업단)	□ 영양 한양조씨 사월종택 주변 LPG배관망 설치 ○ 신청위치 : 경북 영양군 영양읍 하원리 205-6외 58필지 ○ 허용기준 : 1~3구역 ○ 이격거리 : 연접~500m ○ 신청내용 : 하원마을 LPG배관망 구축 - LPG저장시설(2톤) 2개소, 배관망설치 2,341.4m - 배관 매설깊이 : 0.6m~1.2m - 아스콘 포장 2,919.65㎡, 콘크리트포장 692.32㎡	○ 허가 - 배관망이 지반 내 매설되고 포장은 현재의 포장 현황이 유지되어 문화재 주변 경관에 영향이 미미함
제천 정원태 고택	충북 제천시 (단양국유림 사무소장)	□ 제천 정원태 고택 주변 계류정비 허가사항 변경 ○ 신청위치 : 충북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산27-1 ○ 허용기준 : 1구역 ○ 이격거리 : 약 150m ○ 신청내용 : 사방댐 설치규모 변경 - 당초 : 댐 상장 18m, 하장 14.5m, H=2m - 변경 : 댐 상장 28m, 하장 23.0m, H=3m - 변경 사유 : 현장 여건에 맞게 사방댐 규모 현실화	○ 허가 - 기 허가사항보다 사방댐의 규모가 다소 증가하나 차폐조경을 식재할 예정임. - 산사태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규모 변경 필요.
청주 고은리 고택	충북 청주시 상당구 (○○○외1)	□ 청주 고은리 고택 주변 단독주택 진입도로 개설 ○ 신청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 ○ 허용기준 : 3구역 ○ 이격거리 : 약 495m ○ 신청내용 : 진입도로 개설 - 보강토옹벽 : H=0.5m~3.5m 272㎡	○ 허가 - 문화재에서 495m 이격되어 전혀 가시되지 않으므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영주 무섬마을	경북 영주시 문수면 (영주시장)	□ 영주 무섬마을 내 임시주차장 허가기간 연장 ○ 신청위치 : 경북 영주시 문수면 탄산리 605-1, 605-2 ○ 허용기준 : 1구역 ○ 신청내용 : 임시 주차장 설치 허가기간 변경 - 당초 : 2019. 07. 10. ~ 2021. 07. 09.(2년) - 변경 : 2019. 07. 10. ~ 2024. 07. 09.(5년) - 변경사유 :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주차장 설치시까지 임시주차장 사용기간 연장	○ 허가 - 당초 허가기간(2년) 내 철거완료 조건으로 임시주차장을 허가하였으나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주차장 설치 계획임에 따라 주차장 설치 완료시까지 허가기간 연장 필요.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11. 국가민속문화재 훼손 신고 관련 보고

가. 제안사항

서울 종로구 소재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민속문화재 「영친왕 일가 복식 및 장신구류」 중 ‘도류불수문 장신구 상자’가 전시 준비 중 훼손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훼손 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합니다.

나. 제안사유

- 국립고궁박물관이 전시회(‘안녕, 모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가민속문화재 「영친왕 일가 복식 및 장신구류」 중 ‘도류불수문 장신구 상자’가 일부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훼손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하는 건임

다. 주요내용

- (1) 신 고 인 : 국립고궁박물관장
- (2) 대상문화재 : 영친왕 일가 복식 및 장신구류
- (3) 훼손 현황
 - 훼손 일 : 2021.06.29
 - 훼손사유 : 특별전시회(‘안녕, 모란’) 준비 과정에서 뚜껑을 여는 순간 분리



훼손 전



훼손 후

(4) 향후계획

- '21.07.14 관계전문가 훼손 현황조사 및 보수방안 강구
 - 조사단 : 문화재위원 ○○○(복식 전공), 문화재전문위원 ○○○(지류 전공), 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지류담당 연구관 및 연구사

라. 참고사항(2019년도 정기조사 결과/'19.12.14 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조사)

- 뚜껑부분 옥색 회장 직물과 바닥에 충해 흔적이 있으며, 뚜껑 연결부가 2/3가량 분리됨

246	중종294	장신구 상자	가로25.2 세로7.2 높이6.8	1	나무 문주 종이 견사 상아	- 소장처에서 '도류불수문 장신구 상자' 명칭으로 관리됨. - 오동나무 서랍장에 보관 중. - 뚜껑 부분 옥색 회장 직물과 바닥에 충해 흔적이 있으며, 뚜껑 연결부가 2/3가량 분리됨. - 뚜껑 안쪽에 관리번호로 추정되는 일본어 독서와 견출지 1개, 상자 밑면에 견출지 1개 있음.
-----	-------	--------	--------------------------	---	----------------------------	--

2019년도 국가민속문화재 정기조사 결과

마. 의결사항

- 원안접수

불 입. 국가지정문화재 훼손 신고서 1부.

붙임**국가지정문화재 훼손 신고서**

[]국가지정(등록)문화재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보호구역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앞쪽)
신고인	성명 국립고궁박물관장	생년월일	
	주소 서울 종로구 효자로 12		
(전화번호:)			
문화재의 명칭 영친왕 일가 복식 및 장신구류 中 장신구 상자		지정(등록)종류 및 번호 국가민속문화재 제 265 호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국립고궁박물관		수량 1 점	
보호물·보호구역 명칭			
신고내용	사고 연월일 2021. 6. 29.		
	사 고 내 용 - 장신구 상자의 몸체와 뚜껑이 직물과 종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나, 뚜껑이 몸체에서 분리되어 떨어져감		
	사 고 경 위 - 국립고궁박물관 '21년 특별전 '안녕 모란' 준비의 일환으로 전시실에서 유물을 전시하기 위해 뚜껑 양쪽을 잡고 젖힘과 동시에 분리됨		
	조 치 내 용 - 전시장에서 철수 후 전시홍보과 유물보관고로 이동, 보관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6호·제55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제3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1 년 7 월 9 일

신고인

국립고궁박물관장

문화재청장 귀하



전(前)



정면



뚜껑 열었을 때 모습



뚜껑과 몸체 연결부 측면

후(後)



뚜껑 닫은 모습



몸체와 뚜껑이 분리된 모습